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2020.02 VOL.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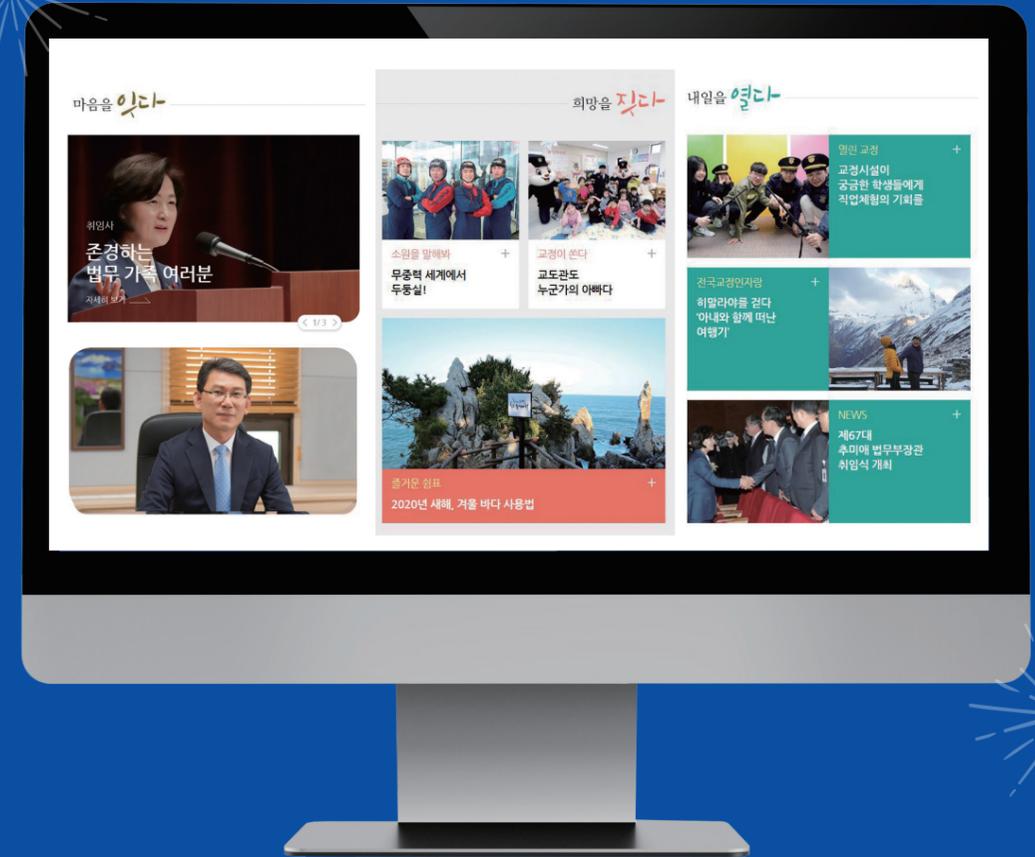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나’에서 ‘우리’가 되는 순간

힘



월간 <교정> 웹진 오픈 기념 이벤트!

<교정인의 힘, **力**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매월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이는 월간 <교정>
이젠 웹진으로도 만나자!



● 새롭게 탄생한 <교정> 웹진을
둘러보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①QR코드 또는 웹주소를 따라(www.cowebzine.com)
<교정> 웹진에 들어간다 ▶ ②웹진을 둘러본 후 이벤트 참여하기를
클릭 ③<교정>을 응원하는 한 마디를 남기면 끝!

▲ 웹진 바로가기

● 웹진을 둘러보고
구독 신청까지 GO GO!

매달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마음을 잇는다

04
인트로

06
테마

동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08
피플

2018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김

12
포커스

협력에 대한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들



희망을 짓는다

16
소원을 말해봐

우리 가족 모두 하늘에서 새해를

20
교정이 쓴다

아빠의 특별한 새해 선물

내일을 열다

24
즐거운 씬표

안녕, 겨울! 강원도 평창

28
힐링타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은

30
심리학 열전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32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편

3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36
맛남의 교정

간단히 만들어 쉽게 먹는
샌드위치

38
헬시라이프

몸의 중심, 척추 건강 지키는 법



40
열린 교정

인천구치소 미추홀 보라미 봉사단

44
전국 교정인 자랑

직업훈련교사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48
희망의 백일장

용서를 구합니다

50
교정리포트

56
카드뉴스

58
NEWS

본부소식 & 일선기관 소식

65
모범공무원 소개

66
REVIEW



2월호 <교정>의 테마는 '협력'입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는 많은 순간이 동료와의 협력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2월호(통권 525호) 64권 2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부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협력한 덕분에 잘 된 일들, 협력을 하면서 느낀 소속감과 기쁨을 떠올려보세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헤쳐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속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바로 협력 아닐까요?
상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의 목표가 같음을 기억하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손 내밀고 함께 발전하는 교정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협력하기 위한 노하우

동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혼자서만 잘 해서 되는 일이란 없다. 작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사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삶은 굴러간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협력이 강조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군대가 아닐까? 충성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동료와의 협력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과 협력에 대해 들여다본다.

사회 생활은 충성 없는 전쟁터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쟁터를 함께 사수하는 내 동료들을 누구보다 신뢰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하는 최선의 방어벽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해군 특수전 부대 네이비셀을 알고 있는가? 네이비셀의 썰(SEAL)은 바다(Sea), 하늘(Air), 땅(Land)의 약자다. 어떤 환경에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는 뜻이다. 그만큼 전투력이 강한 네이비셀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18개월 이상의 훈련을 거치는데 훈련생 중 70% 이상이 중도에 포기할 만큼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시험하는 훈련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각각 20년, 9년 간 네이비셀에서 복무한 조코 윌링크, 레이프 바빈은 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쟁에서 익힌 승리의 원칙과 기술들을 삶과 비즈니스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리더십 컨설팅을 하고 있다.

리더십이 이끌어낸 협력

그들은 저서 <네이비셀 승리의 기술>에서 다양한 협력의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레이프 바빈이 장교 후보생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극한 훈련을 성실하게 잘 따르는 훈련생 팀이 있는가 하면 매번 꼴찌를 도맡아 하는 훈련생 팀도 있다. 물에 빠졌다 모래사장을 뒹굴었다를 반복하며 사흘간 한 순간도 잠 들 시간 없이 훈련은 계속 됐다. 중도 포기를 외치는 훈련생도 속속 등장했다. 각 7명으로 구성된 모든 팀은 물과 모래를 채워 200kg에 육박하는 고무 보트를 언제나 머리에 이고 훈련에 임해야 했다. 한 명의 선임이 조장이 돼 교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조원들을 이끌며 팀의 성적에 책임을 져야 했다.

꼴찌를 거듭하던 6조 훈련생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누구도 의욕을 보이지 못했다. 반면 2조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승리했다. 언제나 조화롭게 움직이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험 많은 교관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이것이었다. “제일 잘하는 2조와 제일 못하는 6조의 조장을 바꿔 봅시다.” 모든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장만 바꾼다. 결과는 어땠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6조는 2조의 승리를 위협하는 강자로 올라섰

다. 새로 6조를 맡은 조장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동료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힘썼다. 동료들도 심기일전하자는 뜻을 모아 협력하기 위해 힘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같은 목표를 보고 나아가다

레이프 바빈이 실전에서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우리 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답이 보인다.’

그의 부대는 저격수와 기관총 사수를 곳곳에 배치해 지상의 아군 병력을 보호하는 ‘저격감시’ 임무를 자주 수행했다. 그날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두 팀으로 나뉘 작전을 수행하던 차에 바빈이 이끌던 팀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팀을 더 작은 조직으로 나뉘 서로 엄호하면서 본부까지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언제나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결정된 내용을 상부에 보고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행히 모두가 무사 복귀했지만 바빈은 지휘관에게 호출됐다. “왜 다른 저격감시팀에 엄호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은 당연한 순서였다. 자신의 팀 복귀에만 신경 쓰느라 반드시 1팀과 공조해야 한다는 교전 수칙을 어긴 것이다. ‘엄호하며 이동하라’는 팀의 교전 수칙 제1항이었지만 더 큰 규모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고 서로 돕는 데 실패했다. 작은 팀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 문제였다. 저지는 이후 협조와 협력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새기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교정인들 역시 언제나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와 내 동료들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규칙을 준수할 것, 이렇듯 협력의 시작은 기본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다섯을 하나로 만드는 힘

2018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김

컬링 볼모지에서 2018 동계올림픽 은메달을 쟁취한 사람들, 한국인들이 컬링에 열광하게 만든 사람들, 국내 컬링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들, 2018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김이다. 지난 1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제1회 코리아컬링리그가 열리고 있는데, 리그 사이에 월간 <교정> 독자들을 위해 팀 김이 자신들의 '협력'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들을 만나다

“영미!” 그 겨울, 안경선배가 부르는 이 이름과 미끄러져 가는 스톤 앞에서 재빠르게 스위핑(브러시질) 하던 선수들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경북체육회 소속 팀 김의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 다섯 선수는 요즘도 컬링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하고 세계 대회에 출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컬링은 아주 오래전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 즐기던 겨울놀이에서 시작됐다. 얼음 위에서 굴리던 돌덩이가 손잡이 달린 약 20kg의 스톤으로 진화했고 정식 스포츠 종목이 됐다.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길이 42.07m, 너비 4.27m의 링크에서 빙판 위 목표 지점인 하우스와 그 중앙을 뜻하는 버튼을 향해 스톤을 던지고 어느 팀의 스톤이 버튼에 더 가까운지를 겨룬다. 컬링에서 중요한 것은 스톤을 버튼에 가깝게 던지는 전략이다. 브러시로 얼음을 닦을 때 생기는 마찰열로 얼음 표면을 녹이면서 스톤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팀 김은 지난 1월 스위스 인터내셔널 베른 레이디스 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스코틀랜드 글린힐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왔다. 최근에는 2019-2020 코리아컬링리그 예선 라운드를 리그 1위로 마무리했다. 2월 말 결승전이 계속될



예정이다.

유럽에서 경기를 치르느라 장거리 비행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북 의성과 경기도 의정부를 며칠 간격으로 오가는 셈이다. 그 피로를 이기고 2시간이 넘는 경기 시간동안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려면 기초 체력 관리가 필수일 테다. 경기 시즌일 때는 체력 훈련이 어려운 환경일 때가 많아 비시즌에 꾸준히 운동을 해둬야 한다. 팀 김은 개인 트레이닝과 크로스핏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크로스핏은 기록 경쟁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희는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운동해요.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만 더해

보자!’ 같은 말이 없던 힘을 짜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김경애 선수가 말했다. 김은정 선수도 “혼자일 때보다 다같이 할 때 더 잘한다는 걸 느껴요. 힘든 훈련을 끝내고 나면 ‘다 함께 해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오늘 해냈으니 내일도 할 수 있다. 함께 성취한 기억이 두려울 것도 없게 만든다. 두텁게 쌓아온 팀워크는 이렇게 매일 더 발전한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 2018 올림픽 때 보여준 더할나위 없는 팀워크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섯 선수 모두 그 당시를 떠올리며 “역대 베스트”라고 입을 모았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어느때보다 간절히 이기기를 바라던 때였고, 다섯 명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합을 맞췄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김은정 선수가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팀 킴’ 그 자체

요즘 진행 중인 리그와 동시에 팀 킴은 컬링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대세인 핑수와 만나 경기를 펼치고, MBC 마이리틀텔레

협력이란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하든 필요한 덕목이다. 김은정 선수는 팀 킴이 뛰어난 협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전(이하 마리텔)에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도 전달했다. 김선영 선수는 멤버들이 모두 핑수 팬이었다며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엽고 매력 있었어요. 촬영 시간이 길었음에도 다들 즐겁게 경기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마리텔 역시 오랜만에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브러시 대신 무려 대결레로 빙판을 닦고 스톤 대신 사람이 올라탄 대야를 던지면서 연예인 팀과 경기를 펼쳤다. “생각지도 못한 경기를 경험하게 됐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면서 촬영 내내 정말 많이 웃었어요.” 김초희 선수의 말이다. 물론 승리는 팀 킴의 차지였다. 활기로 가득한 이들이 각자 자기몫을 해내는 걸 보면서 SBS ‘맛남의 광장’에 출연하면 잘 하겠다고 말하자 선수들 모두 즐거워

하며 “너는 주방을 맡고, 나는 서빙을 담당하고” 하면서 곧장 역할 분담을 착착 진행했다. “SBS ‘런닝맨’에 나가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라며 김경애 선수가 말했다. 하나같이 팀플레이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 중 많은 것이 ‘함께하는 것’에 있다. 협력이란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하든 필요한 덕목이다. 김은정 선수는 팀 킴이 뛰어난 협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훈련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온 것이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목표의식이 강해야 하고요. ‘무조건 우리는 해낸다’라는 의지도 분명해야 해요. 저희는 다섯이 뭉칠 때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죠.”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마음’도 필수다. 팀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도 마냥가지였다. 다섯 선수 모두 제일 중요한 것은 ‘팀 킴’ 자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개인적 이익보다 다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요.” 김영미 선수가 말했다.

서로의 힘과 긍정을 믿고

2013년 태백곰기 전국컬링대회 우승팀이었던 팀 킴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는 눈에 띄는 댓글이 있다. “이 선수들은 5년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얻습니다.” 선수들은 그런 댓글이 있는줄 몰랐으며 감동받은 눈빛을 했다. “저희는 아직도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응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김은정 선수의 말이다. 오는 5월 경에는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현 국가대표팀인 경기도청, 춘천시청 등 상대가 모두 강팀인지라 긴장의 끈을 놓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다. 다섯 선수가 마음을 모아 보여줄 최고의 모습을 말이다. 결과가 어땠든 서로를 믿고 긍정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인터뷰를 읽을 주 독자층, 교정 공무원에 대해 소개하려는 차에 자매인 김영미, 김경애 선수가 “사촌 오빠가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촌의 직업임에도 교도관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 없었죠.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보면서 오빠가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김초희 선수의 먼 친척도 교정 공무원이라고 한다. 다섯 선수 모두 드라마를 통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됐고 교도소 또한 작은 사회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선수들 모두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교정 공무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교정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어려워하고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책임감있게 맡은 역할을 해내는 성실함과 사명감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팀 킴이 응원하겠습니다!”

교정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김영미 선수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어려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김은정 선수
이 사회에서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는 교정공무원 분들, 수용자의 새로운 인생에 큰 힘이 되는 당신들이 계셔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초희 선수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이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서는 안될 멋진 직업이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김경애 선수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선생님 같아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수용자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직업이죠. 전국의 교정 공무원분들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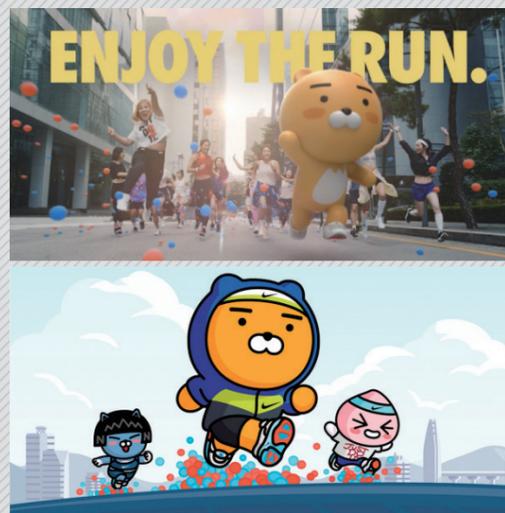


김선영 선수
자신보다 남을 위해 일해주시는 교정 공무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희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협력에 대한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들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협력의 예시는 무궁무진하다. 기업간 콜라보로 전에 없던 아이템이 등장하고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며 이는 소비를 유발해 새로운 바람을 만든다. 어떤 협력은 시장을 넘어선 범위로 확장되어 지구를 지키는 커다란 동력이 되기도 한다.



브랜드간 협력, 대세와 대세가 뭉쳤다

Brand

관련 없어 보이는 브랜드간 잘 완성된 협력은 소비자의 지갑을 연다. 카카오프렌즈는 출시 이래로 거의 모든 업계와 콜라보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인 배틀그라운드X카카오프렌즈, 이디야 커피, 제주삼다수, 동서식품, 농협카드, 클릭 미니 마사지기, 여행서적 저스트고 등이 모두 카카오프렌즈와의 콜라보를 성사시킨 브랜드들이다. 그 중 카카오프렌즈와 나이키 코리아의 리미티드 컬렉션은 골수팬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소비자에게도 친근감을 무기로 다가갔다. 나이키닷컴의 카카오톡 채널 회원이 48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콜라보 굿즈는 1차 라인업 공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웠다. 제품에 캐릭터를 더한 수준을 넘어선 협력이 보다 앞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고 소비자들은 여기에 화답했다.

익숙해져 있던 브랜드가 또 다른 브랜드와 손잡음으로써 신선함이 가미되고 열풍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탄생시키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공간의 협력, 어디까지 가봤니?

한 공간이 가진 특성에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다른 것을 결합시켜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즘말로 '카멜레온'이라 한다. 몸의 빛깔을 자유롭게 바꾸는 카멜레온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공간이 이뤄낸 협력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체험의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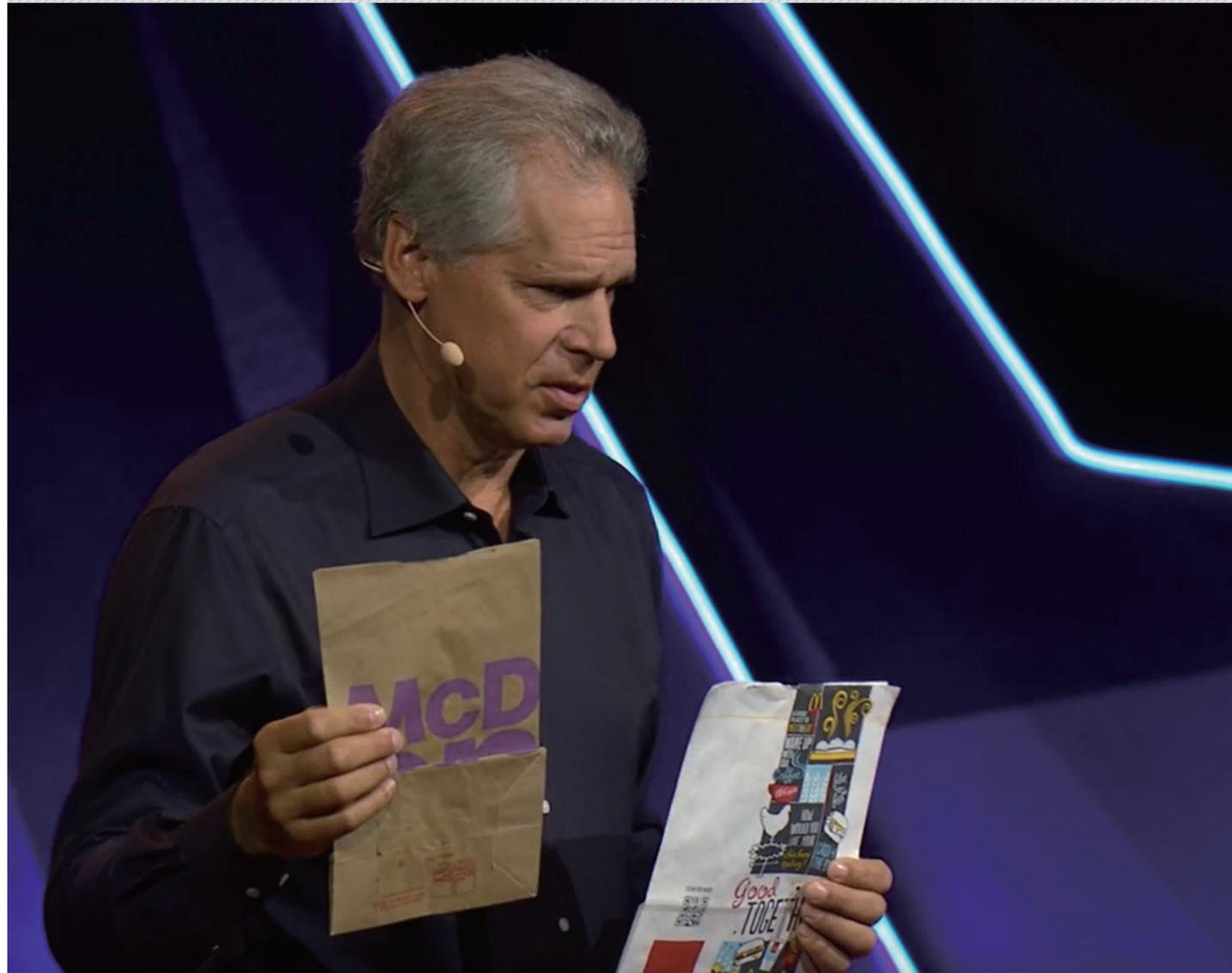
서로 다른 업종이 콜라보레이션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의 협력이 이뤄진다. 그 결과가 소비자의 공감을 살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

감각적인 카페의 한 쪽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공간을 차지한 풍경, 서울 이태원, 망원동 등에 자리한 '론드리프로젝트'다. 커피를 마시고 공간을 향유하며 세탁을 기다릴 수 있게 빨래방과 카페를 접목시켰다. 친환경 세제 등을 구비해 소비 경험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카페에서 들릴 법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여느 은행에서는 보기 어려운 낮은 조도 또한 이곳이 공간과 문화를 협력시킨 컬처뱅크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 가운데 고객 라운지를 두고 오른쪽은 은행, 왼쪽은 편집숍 29cm와 커피 전문점 엔트리사이트로 구성돼 있다.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혹은 볼 일이 없어도 이 공간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협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Space

TED, 밥 랭거트의 강연



'가장 엄격한 비평가와의 협력을 위한 경영 사례'



2019년 11월, TED 강연 무대에 맥도날드의 지속가능부분 전 부사장 밥 랭거트가 등장했다. 그는 음식물 포장용기로 스티로폼을 사용했던 1980년대, 맥도날드가 세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친환경적 포장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친환경에 대해 눈 뜬 맥도날드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다양한 협업을 시작했다.

랭거트는 개선을 위해 비평가들과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맥도날드와 환경보호기금, 맥도날드와 동물 행동학 전문가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의 조합은 이전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왔다. 랭거트는 강연을 통해 협력을 통해 적 이 아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기를 도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해 염소계 표백제로 만드는 흰 포장 봉투에서 무표백 갈색 봉투로 바꾸기에 성공했다. 냅킨 크기를 1인치 줄이는 것으로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됐다. 재활용 사무용지로 1인치 작은 냅킨을 만들어 1년에 쓰레기 1300톤을 줄이고 나무 6만 그루를 베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흰 냅킨을 재활용품 냅킨으로 대체해 쓰레기를 줄이면서 재활용하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갔다. 이 결과를 보고 랭거트와 맥도날드는 비평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협력했다.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많은 육류를 소비하는 맥도날드지만 동물권에 대한 고민도 지속했다.

랭거트는 이전까지는 육류가 도축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국제동물권협회 수장과 만나고 저명한 동물행동학 전문가 템플 그랜딘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면서 더 나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육류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비록 도축을 하더라도 동물복지에 한 발 가까운 방식이 도입됐다.

삼림 파괴 역시 맥도날드가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 랭거트는 이것이 “정부의 일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다.

그린피스와의 협력을 통해 랭거트는 약 열흘 간 아마존을 여행하며 온전히 자연으로 남아있는 그곳을 보존해야 할 필요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소매업체와 공급업체를 발탁하고 이는 삼림 벌채 급감으로 연결됐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결과를 선언했으며 랭거트는 “이 조치가 아직까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랭거트는 강연을 통해 “비평가와의 협업,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좋은 의도를 가진 비평가와의 협력은 더 많은 가능성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몸소 겪은, 충실한 사례가 담긴 그의 강연은 협력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함께 날아오르다 우리 가족 모두 하늘에서 새해를

춥던 바람이 잠시 멎은 어느 겨울 날. 가을만큼 청명한 하늘 아래,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승진 교감과 그의 가족이 전남 담양의 경비행기 체험장에 섰다. 이윽고 새해 첫 머리의 상쾌한 겨울 공기를 가르고 하늘을 날아오른 가족! 웃음 가득했던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했다.



비행하기 좋은 날

혹시라도 기상이 안 좋을까 염려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푸른 하늘에 햇살까지 따끈하게 비치는 체험 당일의 날씨는 최고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의 이벤트를 준비한 아빠의 마음이 통한 걸까. “지금 저는 청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가족은 시흥에 살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기 힘든 가족을 위해 ‘소원을 말해봐’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비행기 체험은 텔레비전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크고 움직이는 탈 것에 관심이 있을 나이래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국내 여러 경비행기 체험장 중에서도 담양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승진 교감의 선물은 시작부터 성공적이었다!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은성이와 은찬 두 아이들은 물론, 이벤트 신청 소식을 몰랐던 엄마 또한 기대가 크기는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월간 <교정>을 평상시 읽고 있어서 이 코너는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신청했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놀랐어요. 촬영도 한다고 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해 좋은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오랜만에 함께 하는 아빠와의 시간이 애뜻할 따름이다. “전에 교도관들의 생활을 취재한 TV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고생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배려가 깊어서, 고생하는 부분들을 가족에게 잘 털어놓지 않으니까요. 언제나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 곳에 모여 살았으면 합니다.” 가족의 소원이 켜켜이 모인 오늘 하루, 그렇게 소중한 추억 또 하나가 더해지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지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평호가 특히 예쁘더라고요.”

창공을 향한 날갯짓!

다양한 경비행기 체험 프로그램 중 가족이 선택한 것은, 15분 간 하늘 위에서 구석구석 담양의 명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코스 A! 순식간에 메타세콰이어가로수길·추월산·담양호·금성산성·죽녹원 등등을 둘러볼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활주장에 서 있는 경비행기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하지만 작아도 비행기의 역할은 충분히 해낸다! 심지어 만일의 경우 무동력 비행으로 안전을 보장한다니, 그저 든든한 오늘의 비행기였다. 그러나 그런 설명에도, 11살 쌍둥이들의 어린 가슴은 기대만큼이나 긴장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체가 작은 탓에 비행기 한 대당 조종사와 승객 단 한 명만 탈 수 있다는 소식에, ‘형아미’를 뽐내고 싶던 아이들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안 타요? 무서워요.” 귀마개에 안전벨트까지 차고 멋진 포즈로 한참 사진을 찍다가도 새삼스레 입술을 빼죽 내미는 것을 보니, 아직 아기는 아기다.

하늘을 날다

첫 번째 타자는 둘째 은찬이와 아빠. 부릉부릉! 힘찬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비행기 두 대가 하늘로 날아 올랐다. 그 뒤를 쫓아 달려가는 은성이의 뽐박질이 날아가는 동생과 아빠를 배웅하고 있었다. 새해의 소원은 ‘동생과 안 싸우기’라는 은성이. 체험 첫 차례를 양보한 의젓한 오늘의 모습은, 그 첫 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보다 15분은 길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궁금해서, 위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마다 신기해서였을 테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아빠가 찍은 사진 속 풍경은 마치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마냥 푸르고 큼직했다. “어디를 둘러보나 지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평호가 특히 예쁘더라고요.” 복닥복닥 아등바등 살던 눈을 들어 먼 곳까지 바라보는 경험. 2020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오늘의 비행은 가족에게 더도 없을 호쾌한 시간이었다. 살포시 착륙한 비행기. 작아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달



엄마, 아빠는 2020년 내내 눈에 담고 살아갈 테다. 창공에서 함께 했던 새해의 첫머리, 은성이와 은찬이의 빛나던 웃음



리, 경비행기 주행은 오히려 큰 비행기보다도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은찬이는 두려움 없이 기쁨만 가득 안고 내린 모양이었다. ‘포로로’ 내리자마자 “또 탈래!” 하며 빈 비행기를 찾아 헤매었다가, 다음 타자인 형아를 ‘우다다’ 찾아와 “안 무서워, 잘 타라구.” 충고하며 으스스했다가, 무척이나 바빴으니 말이다. 환히 읽히는 흥분을 보아하니, 어지간히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윽고 날아오른 엄마와 은성이! 평상시에도 애교가 만점이라는 은성이는 하늘에서도 엄마와 알콩달콩 무전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버튼을 잘못 눌러 ‘아빠, 아빠!’ 밖에 부르지 못했던 동생의 귀여운 실수를 설욕하는 능숙함이다. 체험을 마치고 다 함께 모인 가족. 단 한 명도 빠짐 없이 즐거운 모습에, 오늘 치의 소원은 어느새 살뜰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엄마, 아빠는 2020년 내내 눈에 담고 살아갈 테다. 창공에서 함께 했던 새해의 첫머리, 은성이와 은찬이의 빛나던 웃음을 말이다.

아빠의 특별한 새해 선물

태권도장에서 열린 특별한 '미니 보라미준법교실'

강릉교도소에서 홍보 담당 교도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석 교위는 지난 1월, 조금 특별한 '보라미준법교실'을 준비했다. 바로 10살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을 깜짝 방문해 아들 서진이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미니 보라미준법교실'을 개최한 것이다. 양손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성한 간식을 들고 능률한 교도관의 모습으로 깜짝 등장한 아빠의 모습에 어깨가 으쓱해진 서진이의 행복한 하루를 들여다본다.



아빠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준법교실

“태, 권, 도! 태, 권, 도!” 절도 있고 우렁찬 구령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팔, 다리를 짹짹 뻗으며 태권도 훈련에 한창이다. 아들 서진이를 위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한 이태석 교위는 혹시나 탄로 날까 보라미 탈을 쓰고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 아이들 앞에 나설 기회를 엿본다.

“제가 홍보 담당 교도관이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라미준법교실도 운영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기관소개나 강연도 많이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처음이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서진이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아이들은 초등학교 2~3학년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서 모양이다.

사실 이태석 교위가 오늘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재활하다 보니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과 몸으로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승진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고 아이에게 더 소홀해진 것 같아 아들에게 께인 점수를 조금

만회해 보고자 오늘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리 아빠가 확실합니다!

아이들이 태권도 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정렬해 앉자 드디어 이태석 교위가 아이들 앞에 나섰다. “짜! 와!” 아이들이 보라미 탈을 쓴 이태석 교위를 발견하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와~경찰인가 봐!” 이태석 교위가 입은 제복 때문일까. 아이들은 그를 경찰이라고 확신하며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친구의 아빠예요. 제가 자신의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태석 교위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주위가 흐트러진 아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그의 질문에 몇몇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우리 아빠다”라고 외쳤지만 자신 있게 앞으로 나서는 아이들은 없었다. 그때 한 친구가 “서진이 아빠 아니야?”라며 앉아 있는 서진이를 떠밀었고 쭈뼛대던 서진이도 아빠라고 확신을 했는지 별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드디어 탈을 벗고 정말 서진이 아빠가 맞는지 확인할 차례. 하나, 둘, 셋! 아이들의 구령에 맞춰 이태석 교위가 탈을 벗자, 아빠임을 확인한 서진이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태석 교위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아이들에게 '경례'를 하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했고, 서진이 친구들도 함께 '경례'를 하며 그를 환영해 주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교도관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태석 교위는 홍보 담당 교도관답게 적절한 질문으로 산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능숙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과연 서진이 아빠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복을 입은 이태석 교위를 경찰관이라고 예상했던 아이들은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했다. 경찰관, 경비원, 보안관, 형사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온 끝에 서진이가 정답을 발표할 차례다. 평소 아빠의 직업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친구들 앞이라 긴장했는지 선뜻 대답하지 못 하는 서진이에게 아빠가 옆에서 살짝 귀띔해준다.
 “우리 아빠 직업은 교도관이야.” 서진이가 친구들에게 답을 알려주자 “교도관이 뭐예요?”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이태석 교위

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태권도 관장님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지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오면 아저씨 같은 교도관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번에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태석 교위는 서진이와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해요. 체력이 튼튼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이태석 교위의 진심 어린 조언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와닿았던 걸까. 태권도장이 떠나갈 정도로 씩씩하고 우렁찬 대답이 들려왔다.

서프라이즈 이벤트 성공!

“오늘 아저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태석 교위의 말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이 들려왔다. 벌써 체육관 안에 고소하고 맛있는 치킨 냄새가 진동한다. 군침을 삼키는 아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가까운 근교만 가고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한 번 가려고요. 올해는 서진이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이들에게 이태석 교위가 피자와 치킨을 나눠주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진아 잘 먹을까!” 친구들의 인사에 서진이는 씩씩스러워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다.
 “아빠가 태권도장에 와서 친구들한테 교도관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간식도 사줘서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상을 다 가진 듯 밝은 표정의 서진이를 보니 아빠의 마음도 흡족하다. 간식을 다 먹고 친구들과 보라미 탈을 써보며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이태석 교위의 얼굴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잘못 한 일이 있으면 눈물을 쏟을 정도로 엄하게 대하지만 평소에는 친구 같고 재미있는 아빠라는 이태석 교위는 “늘 바빠서 서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며 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가까운 근교만 가고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한 번 가려고요. 올해는 서진이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오늘 이벤트로 올해 첫 추억을 만든 이태석 교위가 앞으로 가족들과 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이태석 교위와 아내 김유영 씨, 서진이와 함께

안녕, 겨울!

강원도 평창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눈부시게 빛나는 새하얀 눈발, 코끝 빨개지는 알싸한 공기... 내게 '겨울다움'은 이런 빛깔과 온도로 기억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올해 겨울은 겨울다움을 잊은 듯하다. 어느새 겨울의 막바지인 2월. 더 늦기 전에 진정한 겨울 풍경을 머리와 마음에 저장해두고 싶다. 겨울이 길고도 짙은 강원도 평창으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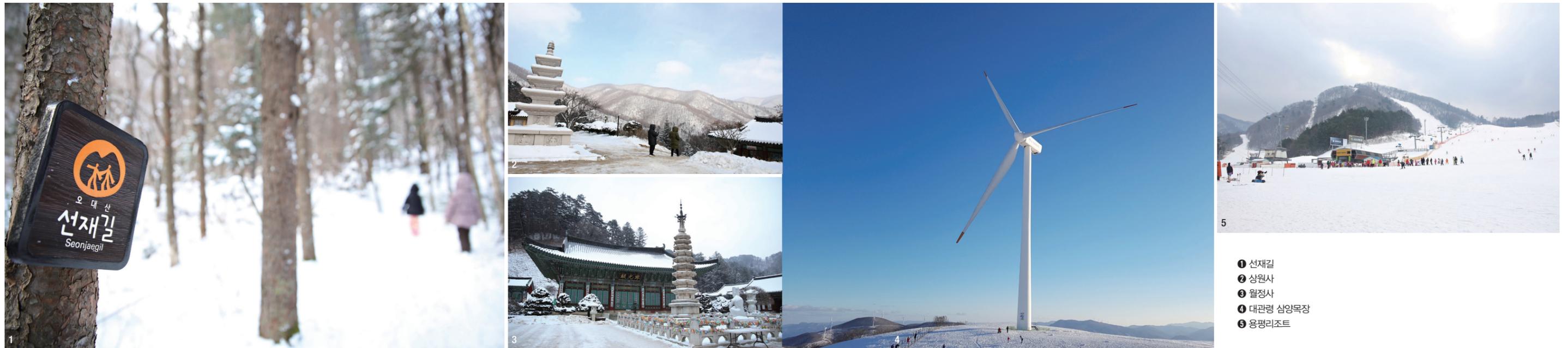
고즈넉한 겨울, 오대산 월정사 일대

뾰드득, 뾰드득. 순백의 눈길을 한 여자가 걷는다. 한 남자는 몇 발짝 거리를 두고 조심조심 뒤따른다. 그러다 남자는 고백한다. “그 핑계로 내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 너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몇 해 전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도깨비’ 속 김신과 지은탁이다.

드라마는 고백의 장소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택했다. 눈으로 뒤덮인 순백의 숲길은 고백의 낱말들을 더욱 애절하게 우리에게 전달했다. 아름답리 전나무 약 1800여 그루가 늘어선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금강교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이어지며 길이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다. 초록빛 가득한 계절에는 싱그러움을, 눈꽃이 만발하는 겨울에는 황홀경을 선사한다.

전나무숲길 끝에는 월정사가 앉아 있다. 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할뿐더러 사찰 자체의 역사적 가치도 높다.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문화재도 탐방해보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다각다층석탑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국보 48-1호)과 탑 앞의 석조보살좌상(국보 48-2호)-현재 월정사 경내의 좌상은 복제품이고 진품은 인근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은 놓쳐서는 안 될 관람 포인트다. 팔





① 선재길
② 상원사
③ 월정사
④ 대관령 삼양목장
⑤ 용평리조트

각 구층석탑 뒤로는 월정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적광전(寂光殿)이 있다. 월정사에는 대웅전이 없고 적광전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보통 석가모니불을 모시면 대웅전, 비로자나불을 모시면 적광전이라 부른다. 특이한 점은 월정사 적광전에는 실제로는 석가모니불이 있다. 이는 오대산이 화엄사상을 널리 전파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적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설경과 문화재라는 일석이조의 여행은 선재길을 따라 상원사까지 이어진다. 월정사와 말사인 상원사를 잇는 약 9km의 선재길은 도로가 놓이기 전부터 많은 스님과 신도가 다니던 길이다. 편리한 찾길이 생긴 이후에도 선재길은 운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단풍 명소가 가을에 가장 번잡하지만 뾰드득거리는 눈길을 걷기 위해 겨울에 찾는 이들도 많다. 상원사는 절집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보와 보물이 여럿 있다. 현존하는 온전한 형태의 통일신라 시대 범종 3구 중 하나인 상원사 동종(국보 36호), 예불 목적으로 제작한 국내 유일의 동자상인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221호) 등이 대표적이다.

월정사 일대는 조선 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사고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오대산사고는 월정사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한국전쟁 때 건물이 모두 불타 이후 복원했다. 사고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국

보 151-3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됐다가 환수했다. 원본은 현재 서울 소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나 월정사 주변의 박물관에서 영인본을 볼 수 있다. 2019년 10월 개관한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이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 영인본을 상설 전시한다.

이국적인 겨울, 대관령 3대 목장

오대산 월정사 일대가 한국적인 겨울 풍경을 보여준다면 대관령의 목장은 이국적인 겨울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너른 고원 지대로 이뤄진 대관령에는 목장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삼양목장, 하늘목장, 대관령양떼목장이다. 비슷한 듯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대관령 3대 목장은 흔히 '한국의 알프스'라고 묘사되곤 한다.

1972년 개장한 삼양목장은 2007년 관광지로 개방됐다. 긴 목책로를 따라 산책하며 젖소와 양이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발 1140m에 위치한 전망대가 핵심 명소 중 하나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동해까지 내다보인다. 어디 그뿐인가. 산줄기를 따라 늘어선 대형 풍력발전기가 이국적인 정취의 정점을 찍는다. 하얀 풍력발전기는 푸릇푸릇한 초원 위에서도 돋보이지만 새빨간 눈밭 위에서는 몽환적인 그림을 연출한다.

하늘목장은 1974년 조성됐으며 2014년에야 일반에 문을 열었다.

자연 순응형 체험 목장을 표방하며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천천히 걸어서 돌아보거나 트랙터 마차를 타고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다. 대관령양떼목장은 삼양목장과 하늘목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만의 서정을 보여준다. 초지 위에 오롯이 선 움막이 베스트 포토존이다. 겨울의 목장은 다른 계절과는 결이 다르다.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양 떼가 노니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대신 광활한 환상의 설국을 만나게 된다.

다이내믹한 겨울,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대관령의 근사한 겨울 풍경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스키장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알펜시아리조트와 국내 대표 스키장인 용평리조트가 모두 대관령에 위치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설상 경기 개최지로 선택된 대관령은 그야말로 눈의 왕국이다.

알펜시아리조트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해 조성됐다. 동계올림픽 때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루지, 봅슬레이, 스퀘레톤 경기가 열렸다. 스키점프 경기가 열렸던 스키점프 타워는 현재 일반인도 관람 가능하다. 모노레일을 타고 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알펜시아리조트와 대관령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스키점프 경기장을 관람하는 스페셜 관광 코스도 선

택 가능하다. 캐나다 휘슬러와 몽트랑블랑, 미국 아스펜 등 세계적인 리조트를 벤치마킹한 리조트 빌리지와 시설 좋은 스키장도 알펜시아리조트의 자랑이다.

알펜시아리조트와 이웃한 용평리조트 스키장은 다채로운 슬로프로 인기가 높다.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스키어가 아니어도 괜찮다. 왕복 7.4km의 관광케이블카를 타고 발왕산 정상(1458m)까지 가보자.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 또 정상에 올라 각각 다른 높이에서 설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정상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흔히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수식어를 갖는 주목 등 희귀목도 많다. 운이 좋은 날이라면 겨울에만 피는 꽃, 상고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info

<평창 대관령의 별미>



대관령의 특별한 자연환경은 눈으로 즐기는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입으로 즐기는 풍성한 맛도 탄생시켰다. 대관령의 덕장에서 차가운 겨울바람 맞으며 열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탄생한 황태와 청정 자연에서 자란 대관령 한우가 유명하다. 칼칼한 맛의 오삼불고기 또한 황계 지역의 명물이다. 싱싱한 배추와 부추를 듬뿍 얹어내는 중식당 '진태원'의 탕수육도 대관령의 인기 별미로 손꼽힌다.



안원숙, 나의 가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은

전시회가 끝났다. 그림들을 떼기 전 다시 한번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오른쪽 모서리께 가만히 마음을 두었다. 한 작품 한 작품, 울림이 번져갔다. 2주 전 오프닝 날이 떠올랐다. 아마추어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아트위드U展>. 10인 10색의 예술 향유자와 함께 했다.

이번 전시는 모두 조금 남다른 분들을 모셨다. 좋아서 그리는 사람들, 재밌어서 계속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예술을 하면서도 예술가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예술이란 아직까지도 고차원적이고 거창한 무엇이라는 인식 때문에 쉽고 재밌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저 황송할 뿐이다. 하지만 예술이 진짜 그렇게 심오하고 심각한 가치인가. 세상에 어려운 예술은 없다. 다만 예술에 잔뜩 쫓아 버린 내가 있을 뿐. 예술 잘 알지 못한다고 고개 돌려버리는 우리가 있을 뿐.

그림을 오래 그려왔어도 전시가 처음인 분도 많았다. 얼마나 설레고 기쁠까.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나 홀로 고군분투다. 수많은 외부적 방해와 하지 못할 이유 백 가지를 극복해야만 작품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분들의 예술혼을 인정하고 사랑하기에 이번 전시 준비에 마음을 잔뜩 기울였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추어를 모았다. 그저 취미였거니 했는데 한 분 한 분 작품같은 인생이 마구 쏟아졌다. 10대부터 90대까지, 시각 장애인 친구부터 의사, 변호사까지 모두 협업했다.

이번 전시는 함께 보고 함께 느끼기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 나갈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과 함께해 온 삶이 궁금했고 그게 진짜 예술의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흔 살 선생님의 무르익은 가을 정취 작품(안원숙, <나의 가을>)을 처음 소개해드렸다.

“나는 일흔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웃대요. 인생 정리할 나이에 뭘 배우냐고요. 그런데 그 후로 20년 그렸어요. 이제 친구들은 많이 떠났어요.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림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 해맑게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울컥했다.

심한 약시로 시력이 거의 안보이는 젊은 친구는 미대를 나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각하며 유추하며 그림을 그렸다. 하늘, 작은 별빛, 밤 등, 그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그것을 회화했다. 좀 더 멋있게 보이려는 욕심도 없고 다만 꾸밈없이 표현했는데도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는 심연의 풍경 같다.

의사인 화가는 사유하는 동화 일러스트로 따뜻한 슬픔의 힘을 돌아보게 해준다. 미대 나온 실력을 푹푹 썩히던 큐레이터는 새로운 소재와 장르인 레진 아티스트로 첫 출발을 했다. 전자공학도 출신으로 내내 지붕을 그리는 분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인지 모른 채 맑고 밝았다. 또 가족들 모두 꽃다발까지 들고 출동한 어느 변호사의 뿌듯한 미소, 길고양이 일러스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 아직 어린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는 엄청난 창의와 감각과 패션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의 그림을 함께 보았다. 가장 편안한 상태로 세상 다정한 마음이 되어, 내가 바라고 바라던 광경이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그림을 함께 보는 것. 예술, 먼 데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발견하는 것.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의 꽃같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예술 너머의 진짜 삶이 보여주는 감동은 우리의 눈빛과 마음을 하냥 순하고 말갭게 만들었다.

예술의 주체는 우리 모두다. 그림 한 점 함께 보고 박수치고 감동할 때에 행복은 어느새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그렇게 마음이 한데로 협력할 때에 행복은 조금 더 쉬운 일이 된다. 전시 기획이 수월한 일은 아니지만 계속 꽃을 심기로 한다. 첫 전시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가슴 벅찬 감동이 앞으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꽃길로 가고 싶다면 기꺼이 즐겁게 꽃을 심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한 역동적인 상태'(WHO, 1998)를 뜻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행복이란 단순히 개인의 정서적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고, 자신이 속한 이웃, 마을, 직장, 단체 등 공동체와 잘 지내면서, 나아가 초월적 존재 및 더 큰 공동의 선(善)을 향한 가치지향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지 모르겠다. 마침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2020년 현재 당신이 얼마나 안녕한지, 얼마나 잘지내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에 눈을 맞추고 묻고 또 답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신체적 안녕은 몸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될 일이다. 여기서는 내적인 측면, 마음을 중심으로 안녕을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방법은 간단하다. 지난 한 달 동안을 되돌아보았을 때,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음을 기준으로 각 문항 옆에 점수를 기입하고, 채점하면 된다. 채점결과, 혹 다른 영역들보다 부족한 영역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증진하고자 주의를 기울이면 될 일이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기준	0회	월 1~2회	주 1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거의 매일
점수	0	1	2	3	4	5

	내적 경험의 내용	점수 기입	소계	총계
1	행복하다고 느꼈다.		A) _____ 점	_____ 점
2	삶이 흥미롭다고 느꼈다.			
3	만족스럽다고 느꼈다.			
4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		B) _____ 점	
5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6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7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느꼈다.		C) _____ 점	
8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 만하다고 느꼈다.			
9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좋다고 느꼈다			
10	평소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다 하고 있다고 느꼈다.			
11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믿음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12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			
13	나만의 생각과 의견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14	내 삶이 방향이나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안녕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 안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인사차 묻는 ‘말’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타성에 젖어 별 의미 없이, 상대가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저 몸에 밴 오랜 습관이 돼버린 무의미한 말인 안녕을 이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대체로 우리는 함께 공유해 온 시간과 경험의 양에 따라, 사귀어온 깊이에 따라 그 사람이 별일 없는지, 하는 일은 잘 되는지, 가족들은 모두 평안한지 마음을 담아 물을 때 눈을 맞추며 “**잘 지내요?**”라고 묻는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이 잘 지내는지 궁금할수록 그와 눈을 맞추며 대답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

신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안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이토록 무관심할까? 평소 마음의 안녕을 착실히 챙긴 사람은 삶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비축해두는 셈인데 말이다.

심리학적 의미에서 ‘안녕’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행복이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구하게 철학의 주요 주제로 여겨져 왔기에, 1890년 경 철학에서 파생된 신생 학문인 심리학에서는 행복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집중했다. 심리학 탄생 이후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등장한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안녕’(well-being)이란 새로운 개념을 구성했다. 심리학자들은 탐구하고자 하는 개념의 명칭과 정의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대!

-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편



"일을 더 잘하고픈 마음, 욕심인가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저는 교도관이라는 제 일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강한 저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한계가 느껴져서 고민입니다. 교도소의 특성상 수시로 수용자가 새로 들어오는데 새로운 수용자와의 관계 형성이 매번 너무나 어렵고 익숙해지지 않는게 저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야 수용자의 교정교화에도 탄력을 받거든요. 새 수용자를 파악하는데 동료들에 비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게 일의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이런 생각이 계속 되니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는지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rom. 잘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님께

안녕하세요, '잘 할 수 있다'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고민을 3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❶ 직업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더 잘하고 싶다.
- ❷ 그런데 내성적이라 힘들다.
- ❸ 때려치워야 할까?

이 1, 2, 3은 선생님이 종사하는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직에 속하며, 어떤 거래처를 만나든 이런 생각은 수시로 듭니다. 나는 교사인데 내성적이라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어려워, 나는 영업직인데 내성적이라 너스레를 늘어놓는 게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요. 끝도 없죠. 왠지 자신이 조직 내의 민폐가 된 것 같아 괴롭고, 맞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외롭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니 자기네들도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란 A부터 Z까지, ㄱ부터 ㅎ까지 몽땅 사람과 얽혀있지 않은 게 없거든요. 프리랜서는 1인 기업이라, 영업과 마케팅, 홍보, 기획, 실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금까지 혼자 다 해야 합니다. 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22년째 하고 있는 저는... 과연 인간관계가 아주 좋고 엄청나게 적극적이며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아마도 저와 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거고, 저를 사석에서 오래 본 친구들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저는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걸 좋아하며, 사람을 상대하는 걸 몹시 힘들어합니다. 일 미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방바닥에 스투크 주저앉아 어어어, 하고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냥 합니다. 왜? 이건 일이니까요. 그리고 일과 저는 하나가 아니니까요. 프로페셔널 모드의 저는 차이를 드러내고 환히 웃으며 약속하고, 회의하고, 논쟁하고, 일을 해치웁니다. 그리고 저만의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엔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듯 제 안의 에너지를 다시 채웁니다.

일은 일일 뿐입니다. 의욕이 마구 넘칠 땐, 나도 모르게 내 일을 나를 너무 담게 됩니다. 잘 풀릴 때는 괜찮아요. 이야, 일이 잘되



니까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 하지만 반대로, 일이 안 풀리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일을 좀 못한 것 뿐인데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처받습니다.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퇴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 눌러, 일 모드에서 퇴근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대로 말아먹었더라도, 일단 근무는 끝났습니다. 산책을, 운동을, 좋아하는 미디어 시청을... 뭐가 되었든 퇴근 후의 시간을 즐길 때입니다.

그나저나, '인싸'니 '아싸'니 하는 용어 말이예요. 저는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인싸라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 눈엔 세상에 돌도 없는 인싸 같은테도 물어보면 하나같이 아싸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는 상처투성이 외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밝아 보이기 위해 꽤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겠습니.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겠죠. 함께 힘내요.



<참여 방법>



고민 상담 신청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또는 QR코드 응모 페이지로 받습니다. 이름과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말고 고민만 작성해 보내주세요.

아침식사로 딱딱

간단히 만들어 쉽게 먹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종류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BLT 샌드위치다. BLT는 재료들의 이름에서 첫 글자를 따와 만들어진 이름으로 각각 베이컨(Bacon), 양상추(Lettuce), 토마토(Tomato)를 뜻한다. 살짝 구운 빵에 각종 재료만 예쁘게 넣어 맛있게 먹으면 간단한 식사 끝!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BLT 샌드위치 만드는 법.



 재료 (2개 분량)



식빵 4장, 베이컨 4장, 토마토 1개, 체다치즈 2장, 양상추(또는 로메인) 적당량, 크림치즈(또는 마요네즈) 적당량
* 취향에 따라 양파, 반숙 달걀, 홀그레인 머스타드 등을 첨가해도 좋다.

 조리 순서



① 식빵은 앞뒤가 노릇노릇해지도록 잘 구운 뒤 한 김 식힌다.

② 기름을 두르지 않은 후라이팬에서 베이컨을 굽고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제거한다.



③ 양상추(또는 로메인), 토마토는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토마토는 약 0.5cm 두께로 썰어 둔다.

④ 식빵의 한 면에 크림치즈(또는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바른다.

* 크림치즈나 마요네즈를 빵에 바르면 기름막을 형성하므로 식재료의 수분 때문에 빵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고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 있다.



⑤ ④위에 양상추를 넉넉히 얹고 슬라이스 토마토, 베이컨, 체다치즈를 순서대로 올린다.

⑥ 크림치즈를 바른 다른 식빵을 덮고 식빵과 속 재료가 함착되도록 살짝 누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완성!

Tip

샌드위치의 맛을 좌우하는 다양한 빵의 세계

샌드위치용 빵을 고를 때는 속재료의 맛과 질감, 수분의 양을 고려하면 좋다. 닭고기처럼 오래 씹는 재료를 넣을 때는 치아바타나 바게트처럼 쫄깃한 식감의 빵이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으면 입안에서 재료와 빵이 함께 씹히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식빵 외에도 샌드위치에 사용하는 빵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담백한 치아바타나 쫄깃한 베이글, 부드러운 잉글리시 머핀 등 종류에 따라 식감과 풍미가 다르므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내 취향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식빵은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어떤 속재료를 쓰더라도 잘 어울린다. 통밀가루, 맥아, 물, 소금 등의 재료로 만드는 이탈리아 빵 치아바타 역시 샌드위치 용으로 많이 쓰인다.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쫄깃한 바게트도 훌륭한 샌드위치용 빵이다. 호밀빵은 밀가루에 호밀, 귀리 같은 곡물을 넣어 만들어 건조하지만 구수한 맛이 난다.

쫄깃한 베이글은 반죽을 끓는 물에 한 번 데친 다음 구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식감을 갖게 됐다. 크림치즈와도 잘 어울리고 반을 갈라 각종 샐러드와 과일을 넣은 샌드위치로 이용하기도 한다.

잉글리시머핀은 영국 전통빵으로, 영국에서는 햄과 치즈, 달걀을 곁들인 아침식사로 애용된다.



몸의 중심 척추 건강 지키는 법

우리 몸이 바로 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척추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 안에서 척추를 지탱하는 엉덩이나 골반, 등, 복부 등 몸 전체를 두루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거나 다리를 곧 채로 앉아 있었다면 당장 자세부터 고쳐 앉자.



나는 편안하데, 척추는 불편하다

바른 자세, 올바른 걸음걸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좀처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자세를 방해하는 환경 투성이야. 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거북이처럼 목을 쪽 빼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게 하는 근무 환경, 게다가 몸에 좋지 않은 불균형한 자세는 도리어 편하게 느껴져 건강을 좀먹는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척추를 휘게 한다. 통증과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척추 맨 윗부분인 경추가 받는 하중은 고개가 1cm씩 앞으로 나올 때마다 2~3kg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고개를 숙일수록 머리 위에 2L 생수병을 하나씩 얹는다고 상상해보라.

바른 척추 건강을 위해 일단 습관부터 바꾸자. 다리 꼬고 앉기, 엎드려서 책 읽기,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싣고 서기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에 체중이 과하게 실려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고 엎드려 책을 읽으면 척추의 S곡선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 목뼈에도 결코 편안한 자세가 아니다. 체중을 한쪽다리에만 싣고 서는 것도 골반을 점차 뒤틀리게 만든다. 등 근육도 펴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척추 맨 윗부분인 경추가 받는 하중은 고개가 1cm씩 앞으로 나올 때마다 2~3kg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고개를 숙일수록 머리 위에 2L 생수병을 하나씩 얹는다고 상상해보라.

코어를 지켜야 무너지지 않는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는 허리와 엉덩이를 깊숙하게 밀착시켜 앉는 것이 좋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은 직각이 되도록 유지한다. 엉덩이보다 무릎이 살짝 높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평소에 근력을 키우도록 노력하자. '코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코어는 몸을 지탱하는, 몸의 중심 근육을 말한다. 등과 배, 엉덩이,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코어근육이 탄탄하면 근육 아래 장기와 중추신경계도 보호되지만 코어가 약하면 주변 근육의 긴장이 심해져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무심코 바닥의 물건을 주우려다 허리가 삐끗하거나 간단한 운동에도 잘 지치고 다친다면 코어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코어를 강화할 수 있다. 매트 위에 엎드리고 양팔을 벌려 스카이 다이빙을 하듯이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고 이를 반복하면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자세를 하면서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게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

소외된 이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해요

인천구치소 미추홀 보라미 봉사단

인천구치소는 '미추홀 보라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성금을 모아 기관 세 곳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설을 앞두고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안부를 전하고, 노숙인재활시설 '은혜의집'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년 새해에도 계속된 '미추홀 보라미 봉사단'의 활약을 소개한다.

인천구치소와 황영자 할머니의 오랜 인연

시야를 가리는 뿌연 미세먼지가 모처럼 사라지고, 따사로운 햇살과 파란 하늘에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진다. 황영자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고미숙 교사와 김상희 교도의 발걸음이 더욱 경쾌하다. 인천구치소는 부서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총무과는 주민센터의 소개로 황영자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넘었다. 순환근무를 하는 탓에 몇 번 직원들이 바뀌었지만 할머니와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부서를 대표해 고미숙 교사와 김상희 교도가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를 찾아뵙고 있다.

“할머니를 찾아뵈는 지는 3년이 다 되어갑니다. 2017년 전임자와 함께 처음 할머니를 만났고 지금까지 찾아뵙고 있죠. 처음에는 업무처럼 시작된 만남이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뵈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할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더 감사해요.”

5년 전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까지 없는 형편이라 사람이 그립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이날을 누구보다 손꼽



(왼쪽부터)김지훈 교감, 임지민 교감, 김건중 교위, 이남웅 교도, 고미숙 교사, 김상희 교도, 이희남 교사



아 기다리고 그들 또한 할머니를 만나는 날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할머니가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실지 알기에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이 그리운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는 직원들

구치소 담장을 따라 쪽 걸으면 머지않아 조금 험하고 을씨년스런 길이 나온다. 재개발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 건물만 남아 쓸쓸한 길. 한 집 걸러 한 집이 빈 건물들인 가운데, 가건물같이 생긴 작은 집 한 채가 바로 황영자 할머니 덕이다. 김상희 교도가 앞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 나와 직원들을 반겼다. 오늘은 특별히 김진중 교위도 동행해 반가움이 2배다. “어휴~추운데 어여 들어와!”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부여잡으며 뜨끈하게 데워진 방 안으로 이끄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매달 올 때마다 첫 만남은 외로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항상 눈물 바람이다.

방안에 들어서니 냉장고와 TV, 작은 침대와 수납장이 전부인 단출한 살림이다. 낡은 집에 오래된 가구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살림에서 할머니의 부지런한 성격이 느껴졌다. 구부러진 허리를 다 펴지도 못한 채 일어서서 손님을 맞이한 할머니는 직원들이 앉자마자 박카스와 요구르트를 내어놓았다. 혹여나 직원들

이 추울까 방을 뜨끈하게 데우고 전기장판까지 높은 온도로 올려놓아 따뜻하다 못해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

“할머니께서 항상 오기 전에 꼭 전화하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세요. 평소에 혼자 계시는 땀 난방을 안 하시는데 약속한 날이면 이렇게 뜨끈하게 집을 데워놓으시는 거죠.”

‘사람이 그림다’는 할머니는 직원들이 오면 그동안 못 했던 말들을 하고 또 한다. 똑같은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말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급기야 손수건에 고이 싸놓은 할아버지의 옛 사진, 서랍 깊숙이 넣어 놓은 영정사진까지 꺼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영정사진은 인천구치소 직원들이 5년 전에 찍어준 거예요. 액자까지 해줘서 잘 간직하고 있어요. 혼자 살면 죽고 나서가 걱정인데 이런 것도 찍어주고 정말 고맙죠.”

마음을 담은 선물과 성금 전달

고미숙 교사는 혼자 사는 할머니의 끼니가 가장 걱정이다. 평소 냉장고에 찬밥 덩어리밖에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약속한 날이 아니더라도 퇴근길에 가끔 들러 반찬을 갖다주며 들여다본다. 정작 본인은 별거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반찬을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인지 알기에

“특별히 헤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냥 와서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리고 직원들이 모은 작은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 다예요.”

할머니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실 특별히 헤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냥 와서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리고 직원들이 모은 작은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정말 기쁘죠.”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 수술에 뇌출혈, 고혈압 등으로 몸이성한 곳이 없어 일을 전혀 못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설을 앞두고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했다. 햄 통조림과 식용유 등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다. “저번에 준 것도 잘 먹었는데... 김치 넣고 통조림 하나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끼니때마다 반찬이 걱정인 할머니에게는 유용한 선물이다. 이제 일터로 돌아가야 할 시간. “조금 더 있다 가지...” 아쉽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다는 걸 알기에 할머니도 직원들을 더 붙잡지는 못한다. “우리 또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김상희 교도는 마지막까지 손녀처럼 할머니를 살

뜰히 챙기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문밖에까지 나와 직원들을 배웅했다. “추운데 들어가세요!” 직원들은 다시 한 달 동안 자신들을 기다릴 할머니가 눈에 밝혀 계속해서 돌아보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노숙인재활시설 은혜의 집에도 성금 전달해

인천구치소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매해 설 명절이 되면 노숙인재활시설 ‘은혜의집’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에 동참해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에도 설을 앞두고 시설을 방문해 이용자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김지훈 교감은 “은혜의집은 인천구치소와 인연이 깊다”며 “인천구치소 수용자가 퇴소해 거처할 곳이 없고 사회복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의집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구치소 직원들은 “노숙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복합

직업훈련교사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엔 봄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늘 방황하며 살던 20대 초반, 우여곡절 끝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나는 원주 직업훈련원 야간과정(기능사 보)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김영춘 선생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나의 불량한 행동 속에서도 순박한 모습을 발견하셨나 보다. 요즘 말하는 흠수저로 태어나 의지할 데 없는 삶이 나를 사회의 반항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도 선생님처럼 직업훈련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지난날들을 이야기 해 주시며 “너도 최소한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해 보겠노라”고 약속했다. 나는 그날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 그해 대학예비고사 시험을 봤고 김영춘 선생님이 나왔다는 인천의 중앙 직업훈련원(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면접시험 때 장래의 꿈이 뭐냐고 묻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했더니 이곳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엔지니어양성 훈련교사를 배출하는 곳이라고 하셨다. 끝까지 붙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졸업을 할 수 있었다. 내 인생에 그때만큼 열심히 공부한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교사 면허도 받았다.

빨리 군에 다녀와서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군을 지원했다. 야전 정비병이었기에 동부전선은 거의 다 가본 것 같다. 그 당시 북한의 금강산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특별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데 철정검문소에서 헌병이 버스에 오르더니 나를 부른다. 영문도 모른 채 헌병 지프차에 옮겨 태워져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은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 길을 만들려는 작업장이었다. 3군단 공병대가 총 집합되었고 매일 청와대까지 일일보고가 되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댐 공사현장까지 길이 만들어지고 민간 댐건설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5월 13일 전역했다. 막막한 심정으로 서울로 상경하여 임시로 자동차정비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하는 강의는 나를 지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안 라디오를 통해 교도소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 00명을 포함한 000명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는 뉴스를 들으며, 교도소에서도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기왕

훈련교사가 될 거면 교도소 직업훈련교사가 되어 나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키도 크고 잘 생긴 선배님이 법무부 직업훈련교사를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다. 그래서 법무부 직업훈련교사면 어떤 사람을 가르치느냐고 물었더니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가르친다고 하셨다. 나는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듣고 교도소 훈련교사가 됐으면 했는데 이렇게 제의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왕이면 꼭 합격시켜달라고 매달렸다. 아무튼 면접을 보고 합격해 청송1감호소로 임용되었다.

혼자 1감호소, 2감호소를 담당했는데 열악한 시설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기 에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근무했다. 지금 생각해도 열정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다. 재소자들에게 출소해 취직하면 찾아오라고 관사 동호수를 알려줬다. 막상 출소해서 청송골짜기까지 찾아오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찾아온 것이 고마워 새로 한 따뜻한 밥을 먹여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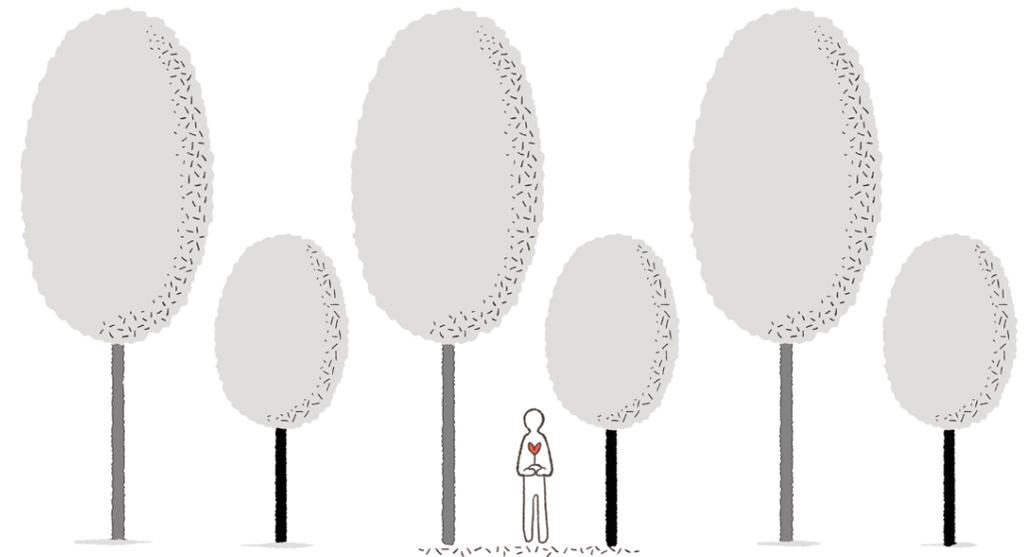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은 피로감으로 쌓여 갔다. 훈련장소를 옮겨,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됐고, 장비들도 면모를 갖췄고 자동차도 수십 대 기증받아 훈련 시킬 만 한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쳐 줘도 출소해서 배운 것들을 쓰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감호를 받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출소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재감호, 삼감호까지 받고 다시 돌아왔다. 모르는 척 해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인연이라고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지만, 웃으면서 “건강하게 있다가 출소하세요”라고 말해준다.

이후 춘천교도소로 자리를 옮겼다. 춘천 정비훈련장도 청송처럼 작은 공간이었는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규모를 확장시켜나갔다.

그러던 중에 사무실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었다며 메모를 건네준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일단 전화를 해 봤다.



나는 한사람이라도 더
 갱생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상담학 공부를 했다.

“선생님 저 종철입니다. 박종철 기억하세요?” 내게서 훈련을 받아 오토바이 수리점을 차렸고 벌써 2년이 되어간다고 했다. 다음 말이 나를 감동시켰다.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해유. 제 결혼식에 선생님께서 주례를 서 주셨으면 해유.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무학인데 한글도 깨우쳐주시고 그 어려운 자격증도 취득하게 해 주셨으니 제게는 은인 이유. 은인! 그래서 꼭 주례를 부탁드려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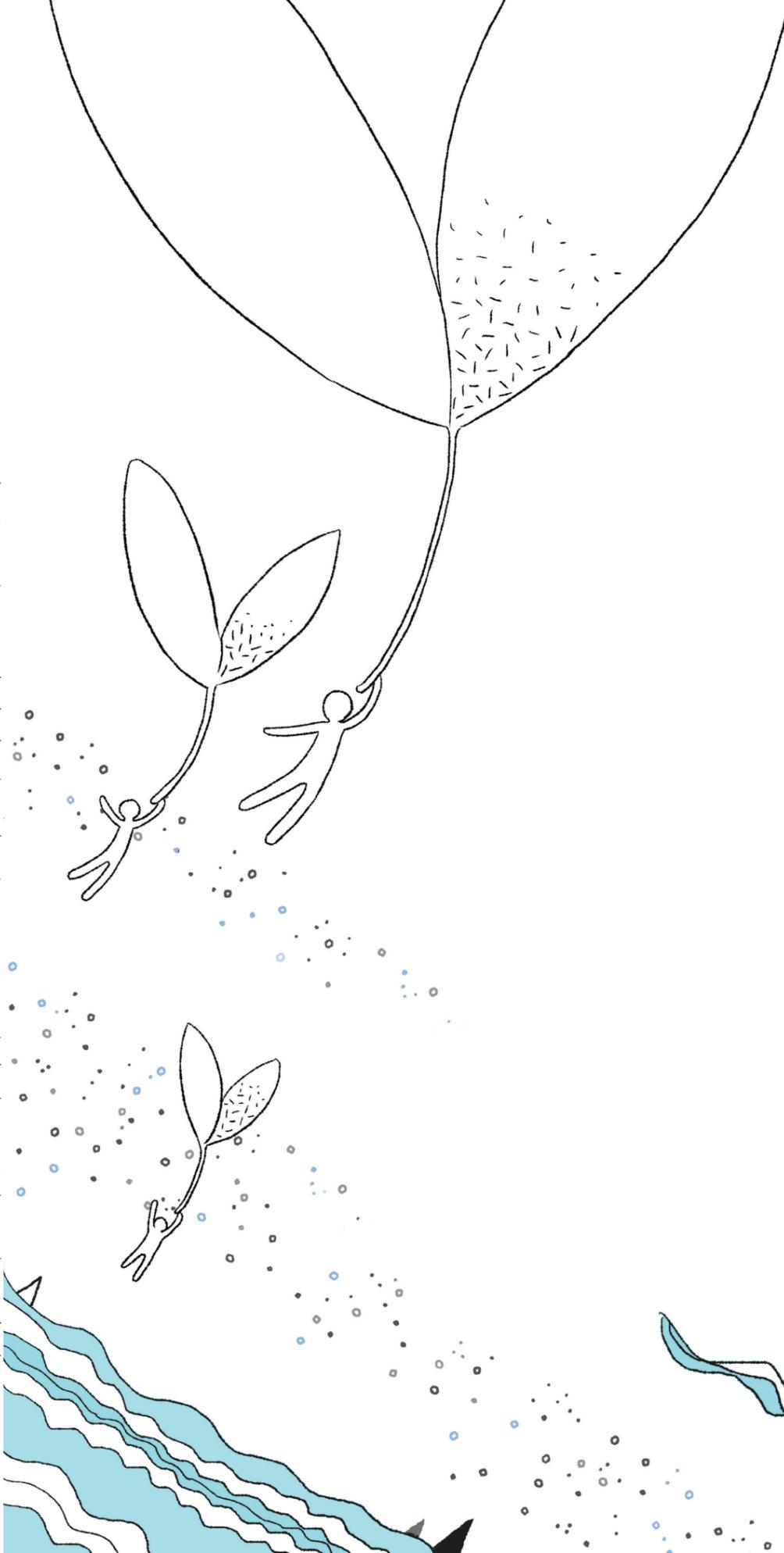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손과 발이 떨려서 서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 맞아어! 내 영향력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출소해서 죄짓지 않고 잘 살면 내 삶은 성공 한거야.”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온다.

지금 같으면 신랑과 사진이라도 찍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주례에 갈음하는 편지와 함께 축하금을 봉투에 담아 신랑에게 쥐어 주었다. 그로부터 벌써 이십여 년이 흘렀다. 그는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으며 큰아들은 경찰이 되겠다고 하고, 둘째는 의경에 입대하겠다고 준비 중이란다. “선생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오토바이 수리점은 접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많이 벌어들였어요”

청송감호소에서 나와 인연을 맺은 감호자들은 교도소 안에 더 많다. 지금도 찾아와 “선생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한다. 하지만 나와 인연으로 사회에 나가 범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로 연락은 못하지만 말이다.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삶의 활력이 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외에도 생각나는 이름들과 사연들이 무척 많다. 나는 한사람이라도 더 갱생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상담학 공부를 했다. 기술교육대학에서 모든 훈련교사들은 전공연수를 신청했지만 나는 상담학 연수를 신청해서 배운 적도 있고 학점은행을 통해 상담학으로 학부 졸업을 하고 남을 정도의 학점을 취득했다. 훈련을 통해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들을 지도하는 훈련교사들일 것이다.

‘성을 쌓으면 망할 것이요. 길을 내면 흥할 것이라’는 옛 격언이 있다. 지금 우리 수행자 직업훈련과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수행자 직업훈련이 올해로 딱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꾸준히 달려왔고 성장과 성과도 이루어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심에서 있는 우리나라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있다. 우리 수행자 직업훈련도 이에 걸맞게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성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직업훈련의 주된 목적은 수행자가 출소 후 안정된 삶의 유지를 위한 양질의 직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대에 맞는 수행자 직업훈련 과정 개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질적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직업교육 제공, 직원들의 처우 개선, 교정보부의 교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과정개발의 예를 들면 대전의 자동차코디네이터 공과와 같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동차 코디네이터 공과신설과정의 배정을 보면 정부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중점과제로 중고자동차거래의 양성화와 자동차 튜닝사업에 착안해서 만들어졌다. 중고자동차 거래가 연간 약 3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자동차 코디네이터 공과는 개개인의 소비자 생활에 딱 맞는 자동차를 선택하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공과다. 베이스를 깔아 놔으니 후임자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은 자동차 정비자격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과정을 개발 신설함으로써 출소 후 자신의 직업 설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교정보부에서 직접 국가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들여다보고 직업훈련과 연관 지어 직업훈련과정을 변화시킴으로 새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이 개발될 것이다.

수준 높은 직업교육 제공으로 훈련교사를 증원하여 각 공과 당 복수이상의 훈련교사를 두어 교과목을 나누고 서로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폴리텍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보다 교도소 안에서 받는 직업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수행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직업훈련교사를 교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다. 과거 별정직공무원에서 현재 전문경력관으로 있는 직업훈련교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훈련교사가 교정직과 동일한 입장이 되어 직업훈련을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경력관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전수할 뿐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 이상을 원하며 더 많은 업무를 요구한다. 하지만 열심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다가도 힘이 빠진다. 다양한 보상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것이다. 과거 교회사나 분류사들도 우리와 같은 별정직이었다. 하지만 교정직으로 통합시켜 더 효과적인 근무체계를 만들어 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외의 사례(노르웨이, 호주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직업훈련교사를 교정직으로 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의 이 좋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리되면 외국 교도소에 가서 훈련시설과 교육방법을 전수하는 그런 날도 올 것이다. 우리 훈련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훈련교사들도 있고 석사학위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능장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후배들을 통하여 그런 소식들이 들리길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은 교정정책을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 직업훈련과의 책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훈련교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 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후배들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는다. 선배로서 뭐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어 글을 통해서나마 용서를 구하며 글을 맺는다.

교정인들의 솜씨 자랑을 도와드립니다. 수필, 시, 사진, 그림, 서예, 공예 등 어떤 작품이든 OK! 교정인의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보여주세요. 작품과 짧은 설명을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시면 다음 호에 실어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뒤흔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생전 첫 재판을 받고 4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아 낯선 사람들과 7개월이 넘는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기만 했던 옷을 입고 사방이 차가운 벽과 쇠창살을 마주하며 지난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스스로를 질타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곤 하였습니다. 사회와 떨어져 모든 것이 단절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며 무거운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 또 한 명의 피해자인 저의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어릴 적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관찮다는 말을 하며 바쁘게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가족보다 평범했고 어떤 특별함도 없었고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범함도 얼마나 힘들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고 언제나 그 뒤에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어머니는 집안의 장녀로 학업보다는 가족을 챙겨야만 했고 그러다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고 기르셨습니다. 외동에 늦둥이였던 저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잘되라고 많은 것을 챙겨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와 관심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투병으로 가족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막대한 병원비와 항암치료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은 모두 아버지께서 책임져야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수술이 끝나도 수술보다 힘든 항암치료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은 모두 없고, 약이 얼마나 독한지 발톱까지 빠지고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어머니는 우울증과도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지만 몇 년 뒤 어머니는 다시 또 한 번의 암 수술을 받아



“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고 당시 영화 스텝 일을 하던 저는 지난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촬영을 그만두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새로 시작한 일은 돈을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매일 가족의 곁에 있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도 잠깐이었고 어머니께는 연이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형제인 외삼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고 이모부와 외숙모 상까지 치르며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믿었던 하나뿐인 아들인 저는 죄를 지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늘 곁에서 지켜주셨던 어머니를 이제는 제가 모시고 효를 다해야 하는데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늘 곁에 있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조금만 멀어지고 떨어지면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그 안에 공허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는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 무게입니다. 그럼에도 같이 용서를 구하는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길고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하나뿐인 가족이 건강하고 가슴속 상처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말로는 잘 표현못하지만 이렇게 글로 제 진심을 전합니다.

“엄마!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 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거울삼아 다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下)*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 II. 교정의료 현황
- III. 주요 업무사항
- IV. 실제 환자 사례
- V. 쟁점 현안
- VI. 맺음말



*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5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접수일(2019. 12. 1.)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4.) 게재확정일(2019. 12. 26.)

3. 형집행정지 건의

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적시에 환자를 출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47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수형자인 당사자 혹은 변호인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신청을 통하여 검사장이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다. 그동안 집행정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심사기준이나 지침이 조금씩 수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13년 모 대기업 부인의 병원 특실생활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2015년 형집행정지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질병으로 출소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장기간의 치료나 입원으로 인해 수용기관이 환자 간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일선기관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가진 검찰 측 입장에서는 환자가 생명에 지장만 없다면 간호의 어려움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선기관에서는 사망이 거의 임박해서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매년 질병에 의한 병사자가 꾸준

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의료과는 앞서 기술한 업무 외에도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 수용자 종합검진, 예방접종, 방역활동 등 다양하게 있지만 의료과 직원들이 야간에 입원 환자 간호에까지 동원되다보니 정상적인 담당 고유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다음은 환자 간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거나 고려하였던 경우들이다.

III. 실제 환자 사례

1. 세 차례 집행정지가 불허된 수용자

환자 Y는 43세 중국인 남자인데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5.20. 입소하였고 형기종료일은 2016.5.11.이었다. 2016.1.9. 00:45분경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으로 외부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검사결과 뇌에 출혈이 있어서 동일 03:25경 수술이 실시되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27일간을 치료하고 2016.2.5.이 되어서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과 달리

일반병실에서는 가래제거와 대소변 처리를 위해 간병인이 필요하였다. 신분이 수용자였고 계호직원이 24시간 환자 옆에서 상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간병인 협회에서는 간병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간병인을 구할 때까지 중국에서 일시 입국한 처에게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면서 병간호를 부탁해야 했다.

2016.2.12.에는 본인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아직은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다. 2016.2.17.부터는 링거와 소변줄을 제거하였고 약을 복용하며 재활치료만 하면 되었다. 2016.2.25. 총 48일간의 입원치료를 끝내고 마침내 퇴원하였다. 2016.2.29. 이 수용자는 가석방이 되어 배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 환자에 대한 집행정지 건의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6.1.12. 1차로 열린 형집행정지위원회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불허 사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기록으로 환자는 수술이 끝나고 무의식 상태였는데 약물로 뇌압조절 치료 중이었다. 2016.1.22.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지만 2차로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회에서 또다시 불허결정이 내려졌다. 2016.2.5. 세 번째 검사 임검이 실시되었다. 2016.2.15. 제 3차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2.5.임검 후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불허처리가 되었다. 이때는 이미 환자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 일반병실로 옮겨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48일 동안 국가가 부담한 총 치료비용은 35,026,770원이었다. 여기에 간병비가 별도로 추가 지불 되었다.

2.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은 노역 수용자

환자 K는 44세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노역 30일을 선고받았다(벌금액, 삼백만원). 2019년 1월 10일 입소하여 2019년 2월 8일이 출소 예정인 수용자다. 입소 두 번째 날 신입자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보행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입소 세 번째 날부터 야간에 잠을 안자고 황설수술하는 등의 알콜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 입소한지 네 번째 되는 날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니 우측 대퇴골 간부에 철심이 박혀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그 위쪽 대퇴골 경부에 새로운 분쇄골절이 생겼음이 발견되었다. 골절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었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보자면 환자가 입소직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 한

걸로 봐서 그때 다쳤을 수 있다. 혹은 알콜 금단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입소직전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서 부러졌을 수도 있고, 수용생활 중 알콜 금단상태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면서 부러졌을 수도 있다. 일단 의료거실에 수용하고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하였고 2019년 1월 18일 외부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실시하였다. 담당의사는 20년 전 대퇴골 간부에 내고정된 금속을 먼저 제거한 후에 새로 생긴 대퇴골 경부의 골절부위를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수술이라고 했다. 일단 소장의 수술허가가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의료거실에서 치료하며 환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알콜 금단 증상으로 황설수술하며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24시간 계속 누워만 있었다. 흔거실 수용자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대소변도 기저귀에 해결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9년 1월 23일 노역집행정지를 건의 하였다. 집행정지를 신청한지 하루가 지난 다음날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검사의 임검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로부터 노역집행정지가 불허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2019년 1월 24일 마침내 소장으로부터 수술허가가 떨어져 외부병원에 입원을 시킨 후 수술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일자가 자주 연기되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되자 환자 간호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1월 31일 직장 내 동호회인 신우회 회원들은 남은 벌금 90만원을 대신 납부해 환자를 출소시켜 주었다. 덕분에 계호 직원을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수용자를 인수할 가족이 없어서 석방이 된 이후에도 직원에 의한 환자 보호는 지속되어야 했다. 입원기간은 정식 석방일인 2월 8일을 훨씬 넘겨 2019.01.24~2019.02.28 총 36일간 이었고 수술비용을 포함한 병원비는 5,973,450원이었다. 또한 대소변 처리를 위해서 29일 간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2,320,000원이었다. 이를 합하면 총 8,293,450원으로 모두 관비로 집행되었다.

3. 장기 집중치료가 필요함에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닌 수용자

수용자 L은 65세 대만 국적의 남자로 마약을 판매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수감 중인데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월 26일이다. 2018년 6월 4일 이 환자가 두통을 이유로 내원하였다. 문진결과 두 달 전부터 오른쪽 시력이 저하되고 얼굴에 감각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1주전부터 오른쪽으로 편두통도 동반되었다. 뇌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하였고 10일 후 C병원 신경과 진료
가 이루어졌다. MRI 촬영결과 비인두암이 의심되니 삼급 대학
병원에 전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8년 7월 11일 D대학병원
에서 비인두 후벽에 5cm 크기의 악성신생물이 있다는 최종진
단을 받았다. 2018년 8월 2일 방사선 종양내과 담당의로부터
매일 총 35회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항암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입원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사선 치료일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매일 총 35회 실시될 예정이다. 항암제 주사치료 일정은 방사
선 치료와 별도로 3주 간격으로 총 6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표 6〉). 이 환자는 6개월 이상 동안 비인두암을 위한 집
중치료를 위해 잦은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해야 했다.

〈표 6〉 입원 내역

횟수	입원 기간
1차	2018.8.12~2018.8.13
2차	2018.9.6~2018.9.10
3차	2018.9.27~2018.9.28
4차	2018.10.29~2018.11.3
5차	2018.11.26~2018.12.1
6차	2018.12.24~2018.12.29
7차	2019.3.20~2019.3.21.

주) 7회차 입원은 조직검사 위함

환자는 운동, 걷기, 출정,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적인 수
용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상
당기간의 집중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정지를 건
의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부족했다. 6개월 이상의 집중 치
료가 끝나고 현재는 정기적으로 통원치료 중에 있다. 이 외
국인 수용자에게 6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급한 총 치료비용은
33,632,000원에 달했다.

위 세 명의 환자는 공정성 시비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중증의 환자들이다. 첫 번째 환자는 상당기간의 중환자실 치료
가 필요했음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불허되었다. 두 번째 환자 역시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불가능함
에도 허가되지 않았다. 세 번째 환자는 집중치료를 위해 잦은
입 퇴원이 반복되어야 함에도 일상적 수용생활이 가능하고 생
명에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자체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지레 포기한 사례이다. 일선 기관은 환자의 치료의지,

집중치료를 요하는 기간, 입원이 필요한 기간, 질병의 정도, 수
용생활 가능여부, 기대여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신청하고 있다. 검찰은 기관의 의
견을 존중하여 가급적 이를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IV. 쟁점 현안

1. 환자 계호인력의 부족

1) 문제점

교정본부 내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매년 외부의료시설 입
원 수용자는 연평균 8.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호인원 역시
연평균 7.35%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2019.5). 내부자료.
입원환자가 생기면 24시간 직원의 계호가 필요하다. 입원이
장기화되거나 입원 환자수가 늘어나면 다음날의 직원 배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예고 없이 변화
무쌍하게 발생하므로 계호에 필요한 직원의 숫자도 변동폭이
매우 크다. 입원환자가 없는 평상시에는 윤번 휴무가 보장이
된다. 근무자들은 각자의 배치장소에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
다. 입원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윤번 휴
무자 뿐만 아니라 사무직 직원들까지 동원이 되어 고유 근무지
에서 벗어나 입원환자 계호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용자가 한 명이라도 입원하게 되면 야간에 6명의 직원이 근
무하고 다음날 비번을 받게 됨으로써 주간 근무인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윤번 휴무마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직원 배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보안직원과 의료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하거나 의료 업무에도 차질이 온다. 직원 정원 대비 수용자나
입원환자가 많은 기관이거나 윤번 휴무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기관일수록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표 7〉 2018년 입원 현황 및 휴무자 근무율 (2019.5). 내부자료.

횟수	수용 인원	직원 수	입원 수용자	입원 일수	1일평균 입원환자	휴무자 근무율%
A(교)	2664	670(5.9)	90	571	1.32	0
B(교)	2081	550(5.5)	150	1193	2.86	0
C(교)	1302	300(6.7)	37	299	0.72	33.27
D(교)	1243	356(5.1)	35	151	0.32	39.48
E(교)	799	272(4.0)	53	380	0.90	45.42
F지소	302	105(4.6)	6	32	0.07	56.61

주1) ()는 보안과 정원 1인당 수용자수.
주2) 수용인원, 직원 수는 2019.7.17.기준임.

〈표 7〉에서 보듯이 보안과 정원 1인당 수용자 수가 4.0명에서부
터 6.7명까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인력진단이 적정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선기관의 규모, 기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적자원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분되어
야 할 것이다.

2) 고려방안

인력증원 없이 근무방식만 변경해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2019.5. 외부의료시설 지원근무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 바 있으나 일선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
다. 현재의 직원정원 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발찌 등 보호 장비를 보완하고 대신에 환자 계호직
원을 줄이는 것이다. 외부의료시설 후송 시 수용자 1인에 직원
3명, 야간에는 최소 5명 이상(선·후번 총인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중환자·여성수용자·노약자 등 도주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호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
다. 이러한 계호원칙을 1:2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도주우려가
높은 경우에 한해 기관장이 판단하여 1:3 계호로 증원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소수의 보안 직원만으로 다수의 수용자를 한곳에 모아서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외부병원의 일정공간을 교정전
문병동 형태로 활용하여 현재의 1대 3 혹은 2대5 계호의 비효
율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료전문교도소나 교정
병원보다 훨씬 저비용 예산으로 가능하다. 실제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가 운용되고 있다.

수용인원이 3,000명인 기관은 10명, 2,000명 이상이면 7명, 1,000명 이상이면 5명을 입
원시킬 수 있는 규모라면 충분하다. 좀 더 수용규모를 확대 한다면 인근 여러 기관의 거
점병원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철격자 등의 보안시설을 갖추고 병원에는 이로 인한 수
익 감소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2. 중증환자 형 집행정지의 곤란

1) 문제점

최근 10년간(07.1.1~16.12.31)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중 자
살, 폭행치사 등을 제외한 질병 또는 돌연사로 사망한 수용자
는 총 187명이었다(〈표 8〉). 교정본부, (2017). 내부자료.

〈표 8〉 연도별 질병에 의한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인원	187	18	12	15	11	16	26	19	24	24	22

주) 교정본부, 2017. 내부자료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형/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였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 혹은 불허가 된 경우를 모두 가정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실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형(구속)집행정지가 신청
은 되었으나 결정이 늦어져 사망한 경우가 2013년 이후 2018
년까지 92명이었다. 이중 75명은 질병으로 사망했고 17명은 자
살로 사망했다(〈표 9〉).

〈표 9〉 구속/형 집행 신청 중 사망자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인원	13(5)	16(2)	20(2)	17(5)	13(0)	13(3)	92

http://www.gsgold.kr/bbs/board.php?bo_table=gs_board3&wr_id=176(2019.8.17.검색)
주) ()는 자살자수

중증환자에 대한 집행정지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13년 이후 공정성을 위해 절차가 그
만큼 까다로워졌고 사망이 임박한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집행
정지가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한 방송사가 송기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
해 질병으로 인해 구속/형 집행정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
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전까지는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사망자수가 잔형 집행자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면 허
가를 잘 안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http://news.sbs.
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5543(2019.8.18.검색)

중증환자의 구속(형) 집행정지가 지연이 되면 환자 계호 문제
외에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라온다. 설사 환자가 사망하지 않
더라도 보호 장구 착용으로 인한 인권논란과 잦은 보안직원의
방문으로 집중적인 치료에 제약이 온다. 도주 방지를 막기 위
한 밀착 계호로 직원들이 환자에게, 환자가 직원에게 감염성
질병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과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대기
중인 다른 수용자의 진료 받을 기회가 박탈되거나 지연되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2) 고려방안

일부 사회 특권층의 집행정지 악용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절차가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질병으로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절대 다수의 평범한 일반 수용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직원과의 유착이나 비리 가능성이 없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까지 공정성을 위해 형집행정지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현재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보다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신에 이를 악용하는 관련자들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수용생활 가능여부는 매일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일선 기관의 의료진이 가장 세밀히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관의 소견서와 외부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형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교정본부로 이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정본부는 일선 구금시설을 총괄하며 수용자의 일상생활, 도주가능성, 재범 가능성,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의 결정권을 교정당국이 가져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과 법원은 사후 평가를 보다 강화하여 적절성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집행정지 외의 다른 대안으로는 치료 목적의 귀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다. 형집행법 제 77조 1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 이상(2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는 7년) 경과한 수용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있을 때 일반귀휴 혹은 특별귀휴가 가능하다.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형 집행법상 명시된 사유에는 ①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②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④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라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부터 치료목적의 귀휴가 지양되고 있다. 2015년 무기수용자가 귀휴 중에 자살한 사건으로 귀휴 허가 요건은 한층 더 강화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무기는 20

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72조 1항). 따라서 중증 환자는 가석방 심사대에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인수 받을 가족이나 치료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귀휴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출소 즉시 추방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재범가능성도 없으므로 별도의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가석방을 시키는 것이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교정의료는 공공의료다. 한 나라의 교정의료의 수준은 그 나라의 공공 의료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5.4%, 공공병상 비율은 10.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공공의사인력은 2010년 5,179명에서 2017년 3,62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보건복지부, 2018a; 1, 7)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은 민간의료 수준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교정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공의료는 최소 비용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경제 논리로는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수용자의 인권 향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관점, 수용질서의 유지 차원, 수용자 건강관리가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 등과 더불어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교정의료가 보다 향상되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을 가진다. 서울고법의 판례를 보면, 교정시설의 현실적 여건이 주의의무 경감사유가 될 수 없고 의료행위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는 의학상식에 준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서울고법09나104689, 11.8.18.)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정의료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수용 관리와 입원환자의 간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계호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교정의료의 질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 외적인 여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의료인을 깊은 고뇌에 빠져들게 한다. 순수한 의료인으로써의 입장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정한 전문가로



써의 입장 사이에서 의료인들은 갈등한다. 심지어 이것이 교정시설 근무의사들의 이직 사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계호인력의 부족문제로 적절한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형집행정지의 신속한 결정으로 환자를 출소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행정적 뒷받침 없이 의료인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온전히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의료적 처치가 적시에 제대로 이행이 될 때 교정의료는 신뢰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정의료의 질적 변화 노력이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인데 첫째는, 계호인력 효율화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증원 없이는 개선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나, 입원 환자와 외부진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계호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계호의 어려움으로 중증환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이들을 하루 빨리 출소시켜 사회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자를 수용 관리하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의 담당 의료전문가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의무관의 소견서가 잘 구비되어 형집행정지가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환자를 선별, 분류, 분배 하는 전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다 정교히 정비하는 것이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일환이기도 하다. 비 의료적인 문제로 무분별한 진료신청이 많아질수록 무성의한 진료로 이어지기 쉽다. 상담위주의 간

단한 진료는 정해진 순회진료 일정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환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 모든 시도가 의료사고, 교정의료의 불신, 민간 의사들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적, 물적, 시스템적 세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선기관이 권위있는 단계로부터 적격한 의료기관이란 인증을 받으려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보안과와 의료과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수용자와의 마찰을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서 의료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된다.

Michael Puisis, 2006,p.491-492.

질 향상은 이러한 본질적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줄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이직율을 감소시킨다. 결국 효율성이 보다 증진되어 비용 절감효과로 이어진다. B.Jaye Anno, 2001, p.328-329.

기관의 위상이 높아져 지역사회의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분쟁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https://www.ncchc.org/health-service-accreditation/>(2019.9.27. 검색)

멀지않은 미래에 교정의학이 대학 강단에서 의과대학생들에게 인문사회의학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어 활발하게 토론되어지고, 교정의료 현장이 전공의들에게 소중한 수련의 장으로 제공되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현재 교정시설이 안고 있는 의사 채용 난제까지 풀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정본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추진계획

*교정본부의 주요소식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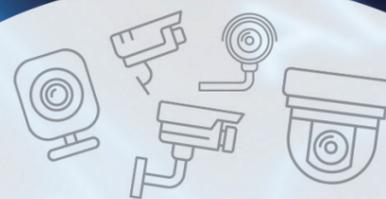


-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19. 4.)**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자녀를 교정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학업·주거·치료·상담 등 지원
-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19. 8.)**
*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녹음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 **아동 친화형 가족접견실 조성**
서울구치소 등 27개 기관('20년 서울남부구치소 등 5개 기관 추가 조성)

1

2020년 주요추진 정책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



실시간 위치확인 및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스마트밴드와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거실관찰을 위한 ‘AI기반 무소음 이동형 CCTV’ 개발·도입

성폭력사범 및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강화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 대상 ‘심화과정’ 심리치료 외 20시간의 ‘유지과정’ 시범운영 확대
-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성범죄자 대상 150 시간의 ‘특별과정’ 운영



1

인권존중의 수용 처우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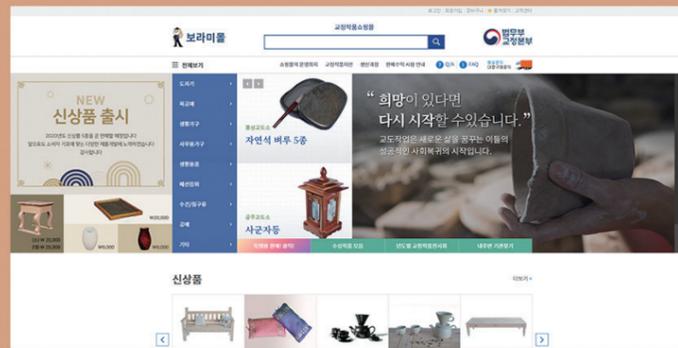


- 수용자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종양 표지자 검사 도입('19. 5.)
-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및 시범운영('19. 7.)
-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 기회 확대('19. 10.)

2

교정 민원서비스 고도화

-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행('19. 1.)
- 개선된 스마트접견 전면 시행('19. 7.)
수형자 신청 접견방식을 민원인 예약 신청 접견방식으로 전환 등
-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19. 8.)
보라미몰 <http://corrections-mall.net>



3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

- '20년 하반기 대체복무제 시행을 목표로 대체복무자 생활관 구축, 대체복무제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



2

접견 통합 플랫폼 구축

-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접견시스템을 통합·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모든 접견호실에 접견통합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 확대



3

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1월 23일 서울구치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고 교정시설을 순시하며 수용자 합동차레 등 설맞이 교화행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수용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진행된 2019년 하반기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정본부의 '교정작품 쇼핑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교정작품에 대한 홍보 부족과 소비자가 직접 제작기관에 주문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교정작품 쇼핑몰은 교정작품 판매증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형자 사회복귀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정

교정본부는 지난 1월 9일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운영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법무행정 및 교정정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하는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본부는 2월 중 교정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활동

교정본부는 지난 1월 21일과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직원 및 외래인 마스크 상시 착용, 수용자 교화활동 및 장소변경접견 등 잠정 중단, 신입 수용자 격리사동 운영, 수형자 이송 일정 조정 등이 있다. 또한 교정본부는 수용자 대상 감염증 예방 수칙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교화방송을 통해 교육하였으며, 교정기관 민원실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감염증 예방 수칙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감염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지난 1월 17일 유승만 교정정책담당장 등 4명은 의왕시 소재 공동생활 시설인 희망의 집과 명륜보육원을 방문하여 시설 아동을 격려하고 격려금품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경자년(庚子年) 시무식 행사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월 2일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승진 직원 신고, 기관장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서울구치소는 1월 21일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생활자들을 위문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천수 소장은 “시설 생활자들이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인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 개최



인양교도소는 1월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양시에 위치한 안양시 지체 장애인 협회, 희망나무 지역아동센터, 희망 세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희망하며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이웃에게 따뜻한 정(情)을 전하다!

수원구치소는 설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각과 총 9개 팀을 꾸려 ‘동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 독거노인 등 10개 가정을 방문하여

성금 및 위문품 전달, 의료봉사를 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보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안
중국 공안부 수사관 시설 참관

서울동부구치소는 1월 16일 중국 공안부 수사관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중국 공안부 수사관들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공조 수사 등의 파견업무를 수행 중이며, 참관을 통하여 한국 교정시설의 발전과 교정행정에 대하여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인천구치소는 1월 14일 인천적십자혈액원과 협조하여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하였다. 교위 김건중은 “혈액검사를 통해 개인 건강도 챙기고 헌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서울남부구치소는 1월 21일 설을 맞이하여 인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하여 ‘성프란치스코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따뜻한 설 명절 사랑의 떡 기증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교정협의회가 협찬한 따뜻한 설 명절 사랑의 가래떡 기증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가래떡 기증행사와 더불어 불우수용자 20명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길용
설 명절 사랑나눔 행사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설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저소

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매월 적립한 기금으로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설 명절 지역 소외가정 위문 방문

여주교도소는 1월 20일부터 설을 앞두고 여주 지역 소외가정을 방문하였다. 사흘간 각 과별로 위탁가정, 기초생활가정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 새해 인사와 위문금을 전달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설맞이 위문 활동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행복한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행사는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춘천교도소는 1월 17일 설을 맞이하여 애민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금은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춘천교도소 직원들이 모은 것이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원주교도소는 1월 22일 설을 맞이하여 원주시 사회복지 시설인 안나의 집과 노숙인 쉼터를 방

문하여 생필품, 온누리 상품권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돕기 위해 원주교도소 전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설 명절 맞이 나눔 문화 실천

강릉교도소는 1월 20일 설을 맞이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5곳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영월군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교육비지원
영월교도소 직원봉사회인 까막떡따구리회에서는 설을 맞아 1월 20일에 영월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에게 교육비를 전달하였다. 교위 장우성 봉사회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월 22일 설을 맞아 수용자에게 기부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교정협의회는 “이 기부품이 평택지소 수용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전 국가대표 선수초청 수용자 스포츠 힐링 특강 개최

소망교도소는 1월 21일 인성교육 수용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전 국가대표선수과 자원봉사자 7명을 초청하여 스포츠 힐링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은 ‘스포츠를 통한 내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강재훈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설을 맞아 1월 22일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호청에 위탁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따뜻한 설 명절, 청렴한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는 1월 21일 설을 맞아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교정 가족, 교정위원, 외부업체 등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가정 등 총 9곳에 대구교도소 직원 봉사단체 ‘대교회망지킴이’가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사랑의 떡, 사과 기증



부산구치소는 1월 23일 ‘사랑의 떡, 사과 기증’ 행사를 가졌다.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떡 200도과 사과 70박스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기증했다.

경북북부제교도소 / 교도 진용혁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경북북부제교도소는 1월 20일 설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자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행사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삼호천 및 민원인 주차장 환경정화 활동



창원교도소는 1월 13일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교도소 주 출입지역인 삼호천 일대와 민원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상시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리를 실시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1월 14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실시하였다. 동절기를 맞아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전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교정위원 참관 및 사랑 나눔 물품전달

포항교도소는 1월 20일, 포항지역 거주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심리치료센터, 직업훈련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탈수기 3대를 전달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N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참관



진주교도소는 1월 13일 나(한국토지 주택공사) 직원 23명에 대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과 부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1월 20일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의 필요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대처하는 자세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지역사회 나눔 실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영양군 '은혜의 집'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찾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설 명절 불우이웃 위문 방문
 안동교도소는 1월 20일 설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문 방문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시설 창원소망원 상리리 마을회관, 관내 불우이웃 3명에게 7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설맞이 소외된 이웃 방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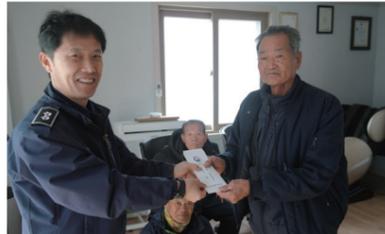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하였다.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지원금 전달은 물론,

매서운 추위 속에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음까지 전달하였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생명나눔 ·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해 '생명나눔 ·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였다.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영진
진보면 지역주민 위문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설을 맞이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월 20일 진보면 소재 결혼가정 등 지역주민 5가구를 방문하여 설맞이 위문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두현마을 노인회관 위문금 전달



울산구치소는 설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월 20일 두현마을 노인회관을 방문해 설맞이 위문금을 전달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사랑의 손잡기 운동 성금 및 선물전달



경주교도소는 1월 21일 경주 내남면 지역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 행사는 이웃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설맞이 사랑나눔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1월 17일 통영시 도남동 소재 아동 복지시설 '아이들 동지 & 파란나라'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통영구치소 직원 봉사단체인 '통영사랑나눔회'에서 주관했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밀양구치소는 설을 맞이하여 1월 21일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매월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적립된 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신망원과 소망원에 성금을 전달하고, 관내 3개 마을과 지역주민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설 선물을 전달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달팽이 봉사단, 설맞이 행복 나눔 행사 실시



상주교도소 '달팽이봉사단'은 설을 맞아 1월 21일 경북 상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희망재활원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복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위문품과 성금, 선물세트 등을 전달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임제혁
설맞이 결연시설 등 위문 활동



대전지방교정청은 1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위문 활동을 펼쳤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노인양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조손가정 등을 방문한 직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솔로몬로파크 직무연수 교사 참관

대전교도소는 1월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직무연수 교육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전국의 초등학교원 36명, 중학교원 37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해양
수용자 자녀에 RED CUP 장학금 전달



청주교도소는 1월 15일 한국전통문화예술협회 도예가 제이미 박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위한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청주교도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불우수용자 9명을 선정 후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승진임용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1월 6일 승진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승진한 직원들은 높아진 계급만큼 한 단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주한미국대사 방문행사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1일 주한미국대사 방문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 등 6명이 방문한 이번 행사는 한국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업무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설맞이 사랑 나눔 실천



공주교도소는 설을 맞이하여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공주교도소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 전 직원이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설맞이 사랑 나눔 운동을 실시하였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설맞이 오은새별원 위문금 전달



충주구치소는 1월 21일 설을 맞이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 오은새별원에 위문금 3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다섯 명의 아동과 세 선생님께서 구

성된 산간마을의 이 아동복지시설은 수년간 충주구치소에서 명절 때마다 찾아가 위문금을 전달하는 곳이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위문 방문 실시

홍성교도소는 1월 16일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결연가정을 찾아가는 '사랑의 손잡기' 위문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노인요양시설 사랑의 동지와 아동양육시설 사랑샘, 관내 사랑의 손잡기 지원 가정을 방문하여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최재균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문

천안개방교도소는 1월 17일 천안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 3곳을 방문하여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사랑의 손잡기 위문 방문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17일 설을 맞아 인근 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 직원의 뜻을 모아 함께 마련한 선물과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지속적인 만남 및 후원으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박지우
초항 민경희 화백과 업무협약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12월 24일 교정참여인사 등 13명을 초청하여 초항 민경희 화백과의 업무협약식 및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다. 민 화백은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범죄성 개선 및 심성순화를 위해 논산지소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광주지방교정청은 1월 22일 설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밀알의 집'과 아동보육원 '애육원'을 방문하여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과 배려의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희망이음 재료창고 준공식 개최

광주교도소는 1월 14일 개방작업장 옆 부지에서 약 3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하는 희망이음 재료창고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에서 직원들은 앞으로 광주교도소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새 건물의 안전을 기원하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된 것을 자축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전주교도소는 설을 앞두고 1월 21일 장애인 복지 시설인 '소화진달네집'과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전주영아원에서는 아이돌보기와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는 1월 15일 안효승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23명에 대한 「2019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제2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설맞이 위문 활동 실시

목포교도소는 1월 20일과 21일 설을 앞두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소전원 등 7곳을 위문 방문하였다. 목포교도소 사랑나눔회는 전 직원이 매월 성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사랑나눔자장봉사회, 사랑의 자장면 제공

사랑나눔자장봉사회는 1월 14일 설 명절을 맞아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에게 점심식사로 사랑의 자장면을 제공하였다. 이번 봉사는 수용자가 혼자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1월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인도주의 활동과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정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설맞이 직원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1월 20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설맞이 선물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직원봉사단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배식 봉사과 미취학 아동 학업 지도를 실시하는 등 수년째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새해맞이 직원 단합대회 개최



해남교도소는 1월 2일 새해의 결의를 다지는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청사 앞에 모인 직원들은 올 한해도 청렴하고 행복한 해남교도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남원시 교정시설 유지 추진 위원회

참관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1월 7일 남원시 교정시설 유지 추진 위원회를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정읍교도소는 남원시에 교정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상주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접견인 왕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유인에 대해 설명했다.

교정공제회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교정공제회는 공제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노호텔앤리조트 콘도회원권을 추가구입했다. 전국에 있는 소노호텔앤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군교도소

희망의 도서 기증 행사 마련



국군교도소에 1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 봉사단이 방문해 300권의 책을 기증했다. 북남선 책수레 봉사단 회장은 "어려운 공간에 책을 채움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깨도록,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곳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서울

여주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윤태희



정보기기 및 양식조리 직업 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훈련생들을 심층 교육해 각종 시험에서 다수를 합격시키는 등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동료들의 고장난 개인 PC를 무상으로 수리 해주는 등 직원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여주교도소 기독교 동호회인 '신우회' 활동을 통해 영치금이 없는 불우한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 모범이 되고 있다.

대구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 허수형



복지과 시설보수 담당자로 서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기관 특성을 반영한 옥외 급수장치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대비에 노력하는 등 시설의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비상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통제실 근무자들에게 장애 응급조치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전

청주교도소 교감 이보구



거실지정 담당 근무자로서 수용관리의 안정화와 교정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직장 내 검도 및 탁구 동호회 회장으로 전국 교도관 무도대

회 우승 외에도 다수의 지역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꾸준한 체력단련을 통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선·후배 간의 교량 역할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

전주교도소 직업훈련교사 김재현



한식조리과정을 교육을 담당하며, 2019년 양식조리과정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기 시험에 응시생 전원을 합격시킨 실적이 있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에 능숙하고, 교안의 연구 및 지도 과정의 숙련도가 높아 직업훈련생의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직업훈련 양성과정에 기여했다.

Review

참여 안내

월간 교정과 교정사의 콜라보!

함께할 교정사를 기다립니다

- 1 월간 교정과 함께 추억을 만드세요.**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2 소원을 말해봐**
버킷리스트 속 한 줄, 월간 <교정>이 지워드립니다.
- 3 교정이 쓴다!**
교정사와 자녀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를 도와드릴게요.
- 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
- 5 <교정> 편집실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교정>을 읽고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의 다채로운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도 당근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선물이 팡팡!

신청 방법



월간 <교정>에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을 보내주세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된 분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참여 신청 바로가기

독자 의견

'맛남의 교정'이 새롭게 신설된 칼럼 같은데, 앞으로 1인 가구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서울구치소 교위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익명의 고민상담 콘텐츠가 신선했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도관의 잘못된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새롭게 시도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하는 월간 교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임태규 서울구치소 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 발열
- 폐렴
-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후, 증상*발생시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선별진료소 안내:
관할 보건소 및 지역번호+120